

동물학대 범죄 예방 대책 마련

2022년 12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

길고양이 돌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세미나

혐오와 갈등을 넘어,
길고양이 복지 향상 및 공존을 위한 활동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목차

여는글	2
‘길고양이 돌봄 형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5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 넘어서기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35
현행법으로 길고양이 돌봄과 보호는 가능하다 찰카기 김하연 작가	47

여는 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이 향상되면서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 등을 직접 구조 보호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들은 지속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 급여, TNR, 구조, 치료, 입양 활동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책임한 반려자들에 의한 고양이 유기나 길고양이를 겨냥한 잔혹한 학대의 수위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아직 풀어가야 할 동물 보호 인식에 대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라는 길고양이 보호와 공존을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현장 활동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년간의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기반으로 사례집과 핸드북을 제작하여 케어테이커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배포하였고, 2016년부터 시작된 공원 급식소 사업은 케어테이커 주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원급식소와 재개발지역 이주 활동이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로 제정되기까지 카라의 결정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동물복지 사업으로 급식소와 TNR이 정착되지 않은 시골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과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과의 소통·교육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전국 각지의 수많은 케어테이커들이 노력하지만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인 TNR은 고정적인 밥자리와 사후 보호를 전제로 함에도, 일부의 기본 인식이 낮아 밥자리로 인한 갈등이 여전하며, 이를 빌미로 학대를 정당화하고 케어테이커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조례 등 현행 규정들을 적용하여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케어테이커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은 중요한 동물보호 활동이자 지역 사회 기여 활동으로써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케어테이커들의 돌봄 활동도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된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에 전국의 총 1,543명의 케어테이커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내용과 TNR 참여도, TNR 만족도와 이해도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본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현재 우리나라 케어테이커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 활동 방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카라는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로 길고양이 정책 발전 근거 자료로 삼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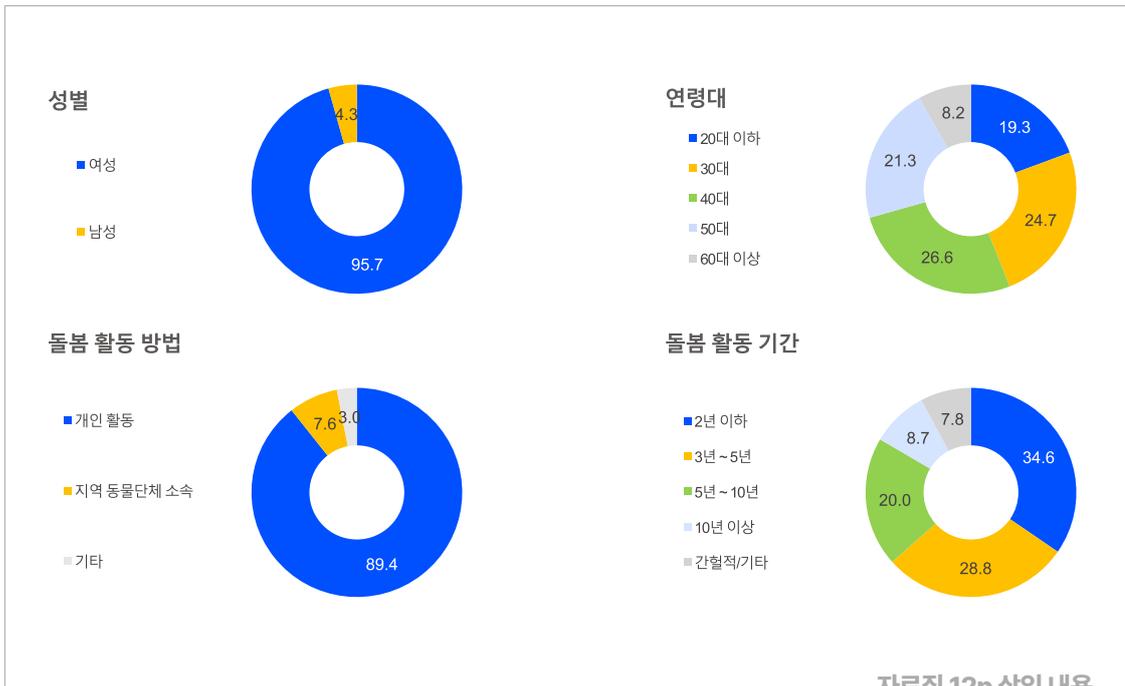
길고양이
돌봄 형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요약

1) 케어테이커의 특성

여성이 95.7%로 대부분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돌봄 활동기간은 2년 이하가 34.6%로 가장 많고 5~10년 이상도 28.7%나 되었다. 연령대는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가 19.3%로 50대 21.3%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2) 돌봄 활동의 내용

- a. 97.7%가 먹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TNR을 하는 비율도 58.8%로 높았다.
- b. 활동경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TNR 실시 비율이 높았으며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경우는 86%에 달했다.
- c. 활동 연도 5~10년과 10년 이상된 케어테이커들의 경우 1년 미만 보다 구조 및 치료활동에 약 3배, 새끼 길고양이 입양활동에는 약 4배나 더 임하였다.
- d. 돌보는 마릿수는 5마리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다.
- e.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주변의 부정적 시선이었다.(32.9%)

	Total (1543)	성별		돌봄 활동 기간					
		여성 (1476)	남성 (67)	1년 미만 (260)	1~2년 (274)	3~5년 (445)	5~10년 (309)	10년 이상 (135)	
(Base)	(1543)	(1476)	(67)	(260)	(274)	(445)	(309)	(135)	
a 먹이 제공	97.7	98.0	92.5	97.3	98.9	98.9	99.0	100.0	
중성화(TNR)	55.8	<u>56.2</u>	47.8	27.3	44.5	67.4	<u>76.7</u>	<u>85.9</u>	
구조 및 치료 활동	46.9	46.9	47.8	23.1	37.6	53.0	<u>65.0</u>	<u>75.6</u>	
길고양이 입양 활동 - 새끼, 유기묘 등	37.7	37.5	41.8	14.2	31.4	40.9	<u>50.8</u>	<u>63.7</u>	
기타	9.2	8.7	19.4	5.8	8.8	8.3	11.3	10.4	

자료집 18p 삽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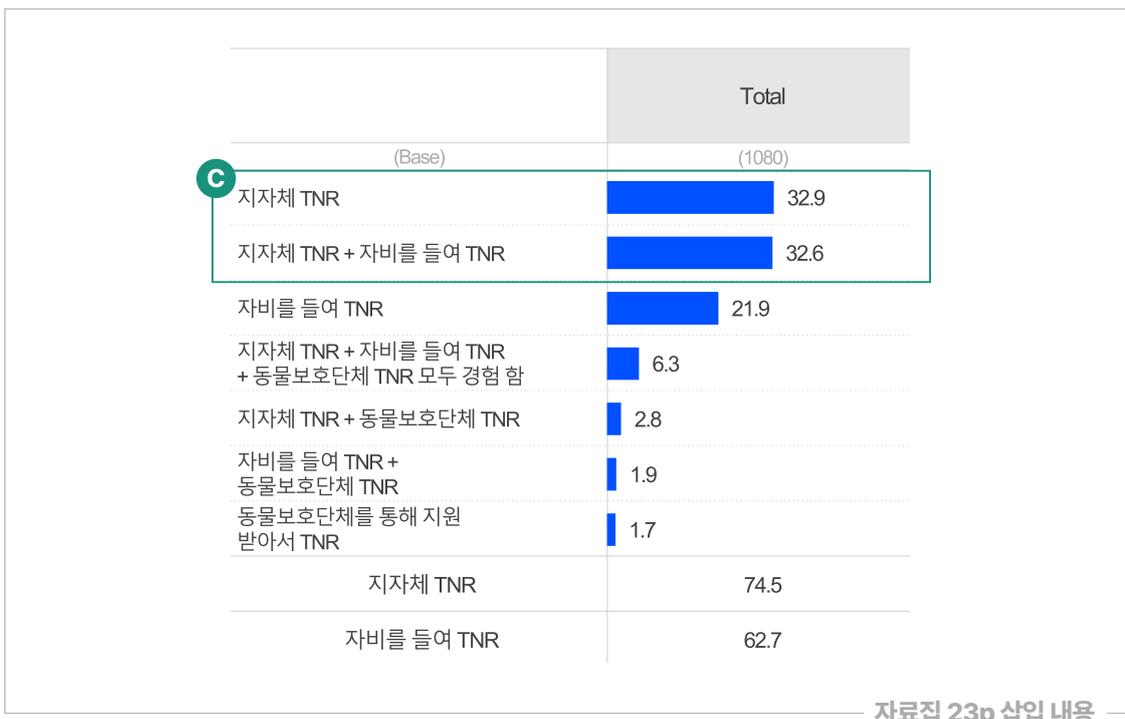
자료집 18p 삽입 내용



자료집 20p 삽입 내용

3) TNR에 대한 인지와 실행

- a. 약 90%가 TNR을 인지하고 있었다.
- b. 미실행의 경우 비용(25.9%), 시간(19.7%)에 이어 지자체 TNR 수술 후 덧난 경험(16.4%)순으로 이유를 들고 있었다.
- c. TNR실시자의 경우 지자체 TNR이용자(32.9%)와 지자체 TNR과 자비 TNR을 병행(32.6%)으로 거의 유사했다.



4) 길고양이 돌봄 월 소요 비용

- a. 3~5만원, 6~10만원, 11~20만원이 20%내외로 유사했다.
- b. 21만원 이상 지출 비율도 26.7%에 달했다.
- c. 연령이 높고 활동 기간이 길수록 소요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는 월 평균 21만원여를 지출하고 있었다.

	Total	성별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Base)	(1543)	(1476)	(67)	(1379)	(117)
3만원 미만	13.1	12.9	16.4	12.8	9.4
3 ~ 5만원	20.9	20.9	20.9	21.5	12.8
6 ~ 10만원	20.2	20.1	22.4	21.0	11.1
11 ~ 20만원	19.1	19.1	17.9	19.1	22.2
21 ~ 30만원	10.2	10.4	7.5	9.8	17.1
31 ~ 50만원	8.4	8.4	9.0	7.9	16.2
50만원 이상	8.1	8.2	6.0	7.8	11.1
Mean (만원)	15.9	15.9	14.4	15.5	21.6

자료집 20p 삽입 내용

5) TNR 실시 및 교육 참여 의사

현재까지 TNR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86.5%가 향후 실시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남성 응답자 34명 중 '실시할 의향이 없다'가 26.5%로 여성 응답자 776명 중 11.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설문 결과를 통한 시사점

한국의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들은 TNR 실시는 물론 구조와 새끼 길고양이 입양과 구조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일부 현재 TNR 미경험자들도 향후 TNR을 실시할 의사가 높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한 TNR 확대 보급과 함께 적극적으로 TNR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케어테이커들이 자발적으로 TNR에 참여하여 길고양이 보호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고양이 돌봄 형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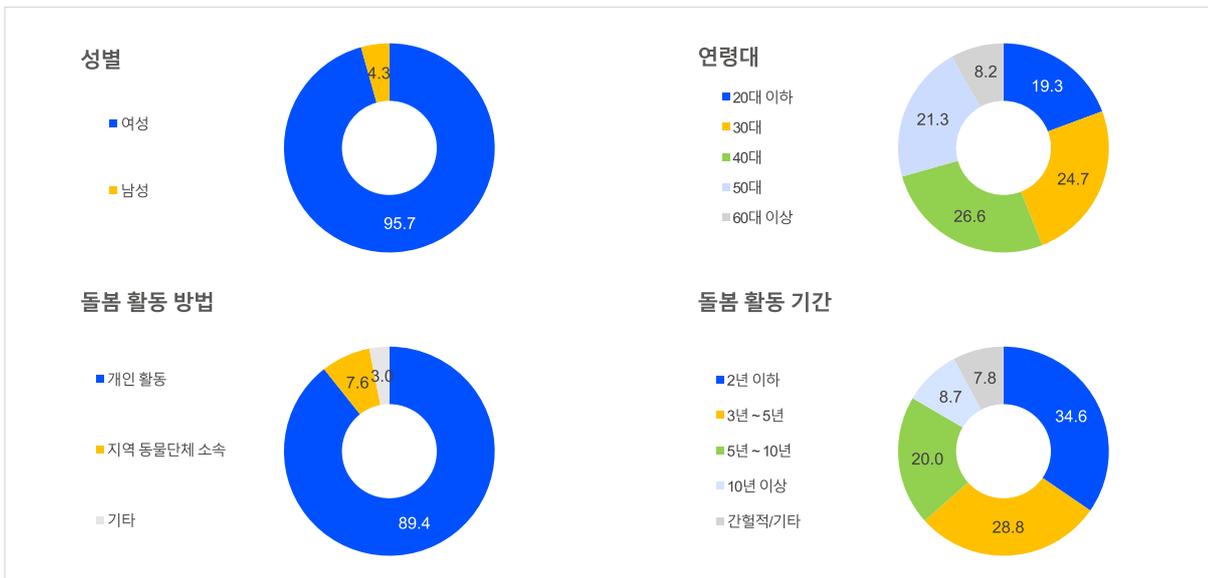
0. 설문조사 목적 및 응답자 특성
1. 길고양이 돌봄 형태 및 TNR 현황(개요)
2. 길고양이 돌봄 형태(비용) 세부 내용
3. TNR 실시 현황 세부 내용
4. 케어테이커의 TNR 평가 및 참여 계획

설문조사 목적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고양이 돌봄 및 TNR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여 케어테이커의 사회적 역할 확인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글 시트 설문지
 조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케어테이커
 표본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543명
 표본 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2.49%
 조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4월 29일 ~ 7월 31일

2

응답자(케어테이커) 특성



[Base : Total (n=1543),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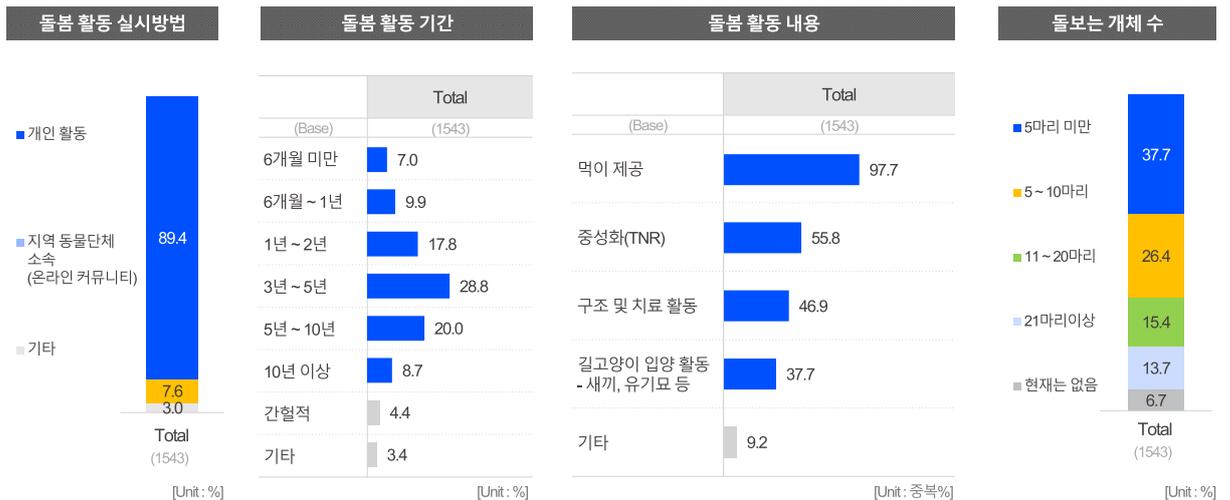
3

1. 길고양이 돌봄 형태 및 TNR 현황(개요)

길고양이 돌봄 활동 현황



- 길고양이 돌봄 활동 실시 방법으로 '개인활동'이 89.4%로 높음
- 돌봄 활동 기간에 대해 '3년~5년'이 28.8%로 가장 높음
- 대부분 '먹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중성화(TNR)' 55.8%, '구조 및 치료 활동' 46.9%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돌보는 길고양이 개체 수로 '5마리 미만'이 37.7%로 가장 높음



길고양이 돌봄 관련 인식



- 돌보는 길고양이 사람 손 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길에서 살아야 하므로 절대 손을 타게 하면 안된다'와 '사람이 좋다면 다가오는 고양이를 막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37.8%, 36.8%로 유사하게 높았음
-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꼽은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돌보는 길고양이 부상, 질병 등 치료비에 대한 부담' 27.7%,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21.5% 순으로 응답됨

돌보는 길고양이 사람 손 타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

	Total
(Base)	(1543)
길에서 살아야 하므로 절대 손을 타게 하면 안된다	37.8
사람이 좋다면 다가오는 고양이를 막지는 않는다	36.8
이미 손 댔으며,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케어테이커가 직접 입양을 보내야 한다	20.4
잘 모르겠다	2.0
기타	3.0

[Unit: %]

길고양이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

	Total
(Base)	(1543)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32.9
돌보는 길고양이 부상, 질병 등 치료비에 대한 부담	27.7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21.5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 진행 필요 시	6.8
TNR 문제 (지자체 예산 부족, TNR 하지 않는 주변 케어테이커 문제 등)	6.0
사료비에 대한 부담	2.4
기타	1.1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1.6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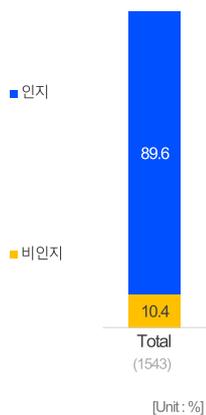
6

TNR 실시/비실시 이유



- 전체 응답자의 89.6%가 길고양이 TNR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길고양이 TNR 실시 이유로 '연이은 출산 등 건강 문제 방지'가 4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 및 관리(무분별한 증가 방지)'가 37%임
- TNR 비참여 이유로는 '비용 문제'를 꼽은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TNR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19.7%, '지자체 TNR 경험 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인해' 16.4% 순으로 응답됨

TNR 인지여부



[Unit: %]

TNR 실시 이유

	Total
(Base)	(1285)
연이은 출산 등 건강 문제 방지	46.8
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 및 관리 (무분별한 증가 방지)	37.0
영역 싸움 방지	12.0
주변 혐오 민원 해소 (발정기 소음)	8.5
꾸준한 급식소 운영을 위해	2.6
고양이 확대 예방 차원	2.5
TNR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음	1.4
기타	0.2

[Unit: %]

TNR 비참여 이유

	Total
(Base)	(610)
비용 문제로(자비로 할 경우)	25.9
TNR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19.7
지자체 TNR 경험 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인해	16.4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	14.3
고양이에게 해로울까봐	9.8
먹이만 주는 것에 만족해서	4.8
지자체 TNR이 무엇인지 몰라서	3.0
중성화 필요성을 못 느껴서	.2
기타	6.1

[Unit: %]

7

TNR 실시 방법 및 중요 요소



- 길고양이 TNR 진행 경험 방법에 대해 '지자체 TNR'과 '지자체 TNR + 자비를 들여 TNR'이 각각 32.9%, 32.6%로 유사한 비중
- 자비로 참여한 이유로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됨'이 45.3%
- TNR 활동 시 중요한 요소로 '중성화 수술(수술 후 안정성 보장)'이 7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자리 방사 여부'와 '방사 후 고양이 밥 급여, 돌봄 및 모니터링'이 각각 36.9%, 36% 응답됨

TNR 진행 경험 방법	
(Base)	Total
(1080)	
지자체 TNR	32.9
지자체 TNR + 자비 TNR	32.6
자비를 들여 TNR	21.9
지자체 TNR + 자비 TNR + 동물보호단체 TNR	6.3
지자체 TNR + 동물보호단체 TNR	2.8
자비를 들여 TNR + 동물보호단체 TNR	1.9
동물보호단체 통해 지원 받아서 TNR	1.7
지자체 TNR	74.5
자비를 들여 TNR	62.7

[Unit: %]

자비 TNR 참여 이유	
(Base)	Total
(677)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됨	45.3
지자체 TNR 후, 고양이가 잘못 될까 염려해서	30.8
지자체 TNR 신청 및 과정이 불편해서	17.0
지자체 TNR 방법을 몰라서	3.4
지자체 TNR 신청 후 오래 걸려서/시기가 안 맞아서	1.5
기타	2.0

[Unit: %]

TNR 활동 시 중요한 요소	
(Base)	Total
(1257)	
중성화 수술 (수술 후 안정성 보장)	73.1
제자리 방사 여부	36.9
방사 후 고양이 밥 급여, 돌봄 및 모니터링	36.0
포획 전 모니터링 (개체 파악 및 임신, 수유 여부 파악)	21.2
안전한 포획 방법	19.5
돌보는 케어테이커 유무 여부	8.3
청결하고 안정적인 급식소 여부	7.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체카드 정확한 정보(사진 등)	5.7
잘 모르겠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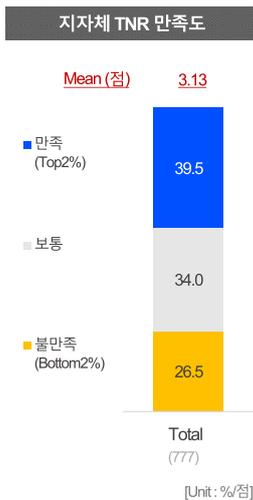
[Unit: %]

8

지자체 TNR 만족도



- 지자체 TNR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지 않았음
- 지자체 TNR 만족 이유로 'TNR 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수술을 잘한다', '별탈없이 잘 진행되었다', '케어를 잘해준다' 등이 주로 응답됨
- 보통/불만족 이유로는 '케어 기간이 짧다', '예산 부족', '스케줄이 밀려 오래 걸린다/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양이에 대한 배려 없는 수술과 후속 조치', 등 다양한 점이 지적



[Unit: %/점]

지자체 TNR 만족 이유	
(Base)	Total
(180)	
TNR 후 건강하게 살고 있다	24.4
수술을 잘한다	9.4
별탈없이 잘 진행되었다	7.8
케어를 잘해준다	7.2
고양이를 배려한다	5.0
소통이 빠르다/잘된다	5.0
길고양이 TNR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다	4.4
의사 선생님이 믿음이 간다	3.9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	3.9
무료인 점	3.9

[Unit: 중복%]

지자체 TNR 보통/불만족 이유	
(Base)	Total
(428)	
케어 기간이 짧다	10.0
예산 부족	8.9
스케줄 밀려 오래 걸린다/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8.2
고양이에 대한 배려 없는 수술과 후속 조치	6.3
TNR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주지 않는다	6.1
TNR 하고 죽는 고양이가 가끔 있다	5.4
비위생적인 수술 공간 및 입원환경	4.7
TNR 수술 진행 과정과 수술 후 방사까지 확인을 할 수 없다	3.5
검진이 동반되지 않는다	3.5
귀 컷팅이 심하게 깊다	3.5
전문적 지식 없는 관련 공무원 및 포획원	3.3

[Unit: 중복%]

9

지자체 민원 경험 및 교육 참여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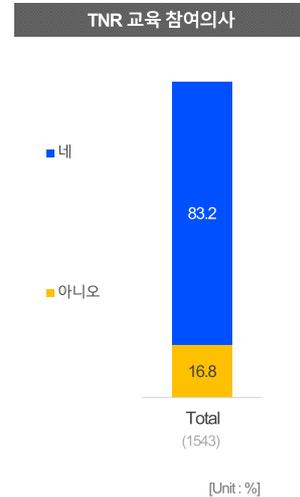
- 응답자의 51.3%가 지자체에 민원을 넣은 경험이 있으며, '지자체에 전화 도움 요청'이 31%임
- TNR 실시 경험이 없는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86.5%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며, 1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3.2%가 향후 TNR 교육 진행 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지자체 민원 경험	Total
(Base)	(1243)
지자체에 전화 도움 요청	31.0
지자체 + 국민신문고 민원 및 도움 요청	12.4
국민신문고 민원 및 도움 요청	8.0
방법은 알지만 민원을 넣은 적은 없다	21.4
도움 요청할 일이 없었다	21.3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6.0
민원 경험률 (%)	51.3

[Unit: %]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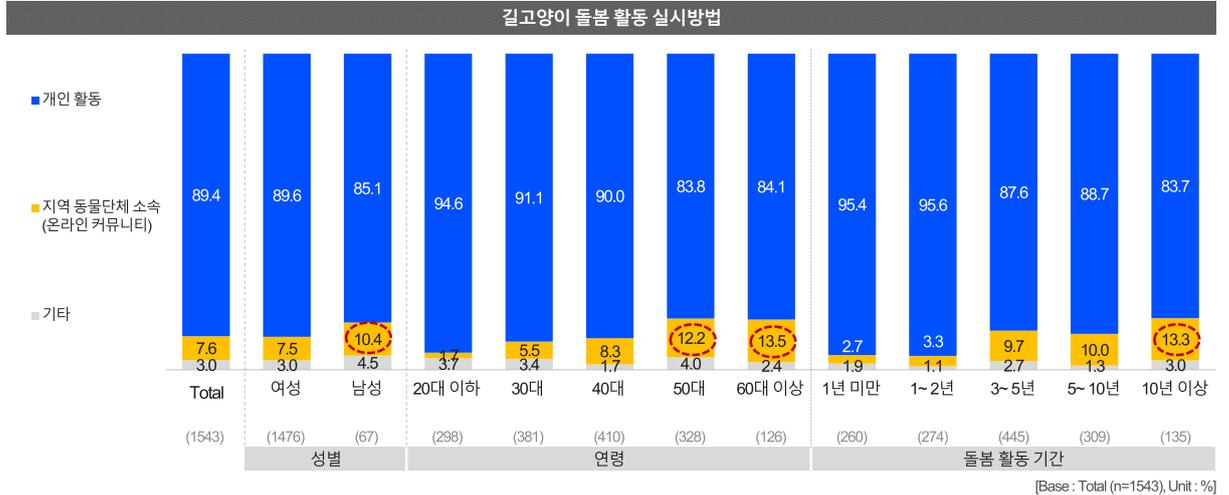
[Unit: %]

10

2. 길고양이 돌봄 형태(비용) 세부 내용

길고양이 돌봄 활동 실시 방법

- 길고양이 돌봄 활동 실시 방법으로 '개인활동'이 89.4%로 높은 비중이며, 7.6%는 '지역 동물단체 소속'되어 활동함
- 남성, 50대 이상, 돌봄 활동 10년 이상 케어테이커 중에서 '지역 동물단체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음



| 12

길고양이 돌봄 활동 기간

- 길고양이 돌봄 활동 기간 '3년~5년'이 가장 높았음
-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기간이 길었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Base)	(1543)	(1476)	(67)	(298)	(381)	(410)	(328)	(126)	(1379)	(117)
6개월 미만	7.0	7.0	7.5	16.1	7.6	5.1	2.4	1.6	7.6	-
6개월 ~ 1년	9.9	9.9	9.0	15.4	11.5	9.3	6.4	2.4	10.4	6.0
1년 ~ 2년	17.8	18.0	13.4	27.9	18.6	16.3	14.0	5.6	19.0	7.7
3년 ~ 5년	28.8	28.8	29.9	19.1	30.7	32.0	32.3	27.0	28.3	36.8
5년 ~ 10년	20.0	20.0	20.9	7.4	18.1	22.4	27.4	28.6	19.9	26.5
10년 이상	8.7	8.9	4.5	0.7	3.9	8.0	13.1	33.3	8.2	15.4
간헐적으로 돌보고 있다	4.4	4.2	9.0	8.1	5.0	4.1	2.1	0.8	4.3	4.3
기타	3.4	3.3	6.0	5.4	4.5	2.7	2.1	0.8	2.4	3.4

[Base: Total (n=1543), Unit: %]

| 13

길고양이 돌봄 내용

- 길고양이 돌봄 내용으로 대부분이 '먹이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성화(TNR)' 55.8%, '구조 및 치료 활동' 46.9% 순으로 나타남
- 여성, 50대 이상, 지역 동물단체 소속 활동가, 돌봄 활동 기간이 길수록 '중성화(TNR)' 비율이 높았음
- 60대 이상 및 돌봄 활동 5년 이상 실시자는 '구조 및 치료 활동'과 '길고양이 입양 활동' 실시율이 더욱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돌봄 활동 기간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Base)	(1543)	(1476)	(67)	(298)	(381)	(410)	(328)	(126)	(1379)	(117)	(260)	(274)	(445)	(309)	(135)	
먹이 제공	97.7	98.0	92.5	96.6	97.1	98.3	98.2	99.2	98.5	94.9	97.3	98.9	98.9	99.0	100.0	
중성화(TNR)	55.8	56.2	47.8	35.6	54.3	57.1	66.8	75.4	53.8	83.8	27.3	44.5	67.4	76.7	85.9	
구조 및 치료 활동	46.9	46.9	47.8	33.2	44.9	53.4	48.5	60.3	46.0	65.8	23.1	37.6	53.0	65.0	75.6	
길고양이 입양 활동 - 새끼, 유기묘 등	37.7	37.5	41.8	27.5	36.0	39.3	41.2	52.4	35.8	59.8	14.2	31.4	40.9	50.8	63.7	
기타	9.2	8.7	19.4	6.4	6.6	8.8	13.7	13.5	8.4	12.0	5.8	8.8	8.3	11.3	10.4	

[Base: Total (n=1543), Unit: 중복%]

14

현재 돌보는 길고양이 개체 수

- 현재 돌보는 길고양이 개체 수로 '5마리 미만'이 37.7%로 가장 높은 비중
- 연령이 많을수록, 돌봄 활동 기간이 길수록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의 돌보는 개체 수가 더욱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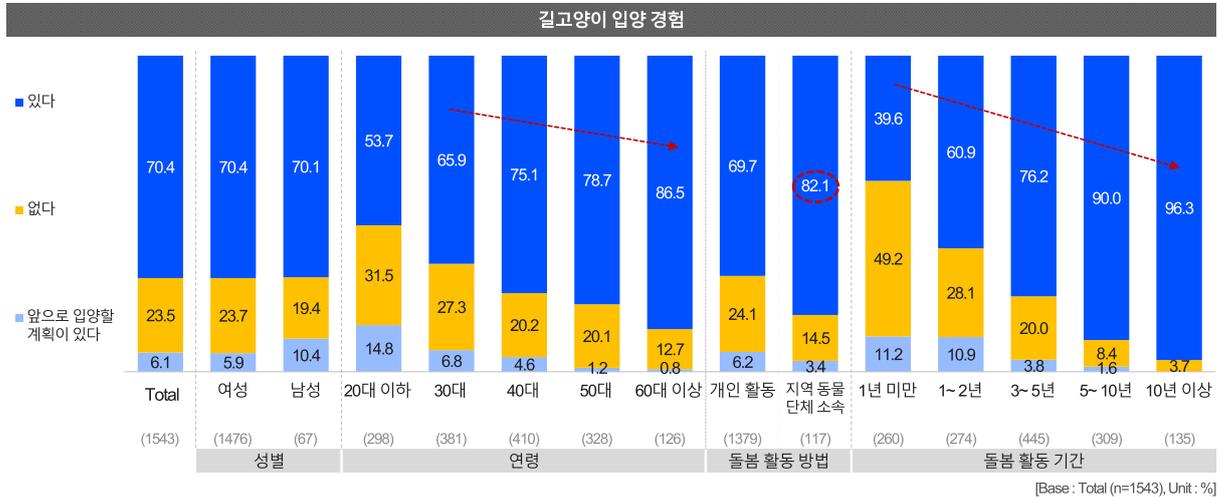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돌봄 활동 기간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Base)	(1543)	(1476)	(67)	(298)	(381)	(410)	(328)	(126)	(1379)	(117)	(260)	(274)	(445)	(309)	(135)	
5마리 미만	37.7	37.8	35.8	54.0	46.5	33.4	27.1	14.3	39.4	21.4	67.7	52.2	30.6	21.0	11.9	
5~10마리	26.4	26.2	31.3	21.5	26.0	30.7	27.7	22.2	27.4	19.7	22.7	28.1	37.1	26.5	14.1	
11~20마리	15.4	15.7	9.0	8.1	12.6	18.0	20.1	20.6	14.9	22.2	3.5	13.9	19.8	23.3	23.0	
21~30마리	6.4	6.2	9.0	1.7	2.9	6.8	9.8	17.5	5.9	12.0	-	2.9	4.7	14.2	18.5	
31~50마리	3.5	3.5	3.0	0.3	2.6	2.7	5.2	11.9	3.3	7.7	-	1.5	3.1	6.5	11.9	
50마리 이상	3.8	3.8	4.5	0.7	1.8	2.7	7.9	10.3	3.3	9.4	-	0.4	2.0	7.1	20.0	
현재는 없음	6.7	6.7	7.5	13.8	7.6	5.6	2.1	3.2	5.8	7.7	6.2	1.1	2.7	1.3	0.7	

[Base: Total (n=1543), Unit: 중복%]

15

길고양이 입양 경험

- 전체 응답자의 70.4%가 길고양이 입양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활동 기간이 길수록 개인활동 케어테이커보다는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의 입양 경험율이 높았음



16

돌보는 길고양이 사람 손 타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

- 돌보는 길고양이 사람 손 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길에서 살아야 하므로 절대 손을 타게 하면 안된다'와 '사람이 좋다면 다가오는 고양이를 막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37.8%, 36.8%로 유사하게 높았음
- 여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 활동기간이 길수록 '길에서 살아야 하므로 절대 손을 타게 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높았음
- 20대 이하 및 돌봄 활동 기간 1년 미만층은 '이미 손 댔으며,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케어테이커가 직접 입양을 보내야 한다'가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돌봄 활동 기간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Base)	(1543)	(1476)	(67)	(298)	(381)	(410)	(328)	(126)	(1379)	(117)	(260)	(274)	(445)	(309)	(135)	
길에서 살아야 하므로 절대 손을 타게 하면 안된다	37.8	38.3	26.9	29.5	38.8	37.6	42.7	42.1	36.9	49.6	27.7	33.9	40.9	41.1	48.9	
사람이 좋다면 다가오는 고양이를 막지는 않는다	36.8	36.2	50.7	39.9	36.7	36.1	35.1	36.5	37.9	29.1	41.2	40.1	38.4	35.3	25.9	
이미 손 댔으며,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케어테이커가 직접 입양을 보내야 한다	20.4	20.5	17.9	24.5	19.4	21.0	18.0	18.3	20.2	20.5	26.2	19.7	15.5	19.7	20.7	
잘 모르겠다	2.0	1.9	4.5	3.0	1.6	1.7	2.1	1.6	2.2	-	2.7	2.6	1.6	1.9	1.5	
기타	3.0	3.1	-	3.0	3.4	3.7	2.1	1.6	2.8	0.9	2.3	3.6	3.6	1.9	3.0	

[Base : Total (n=1543), Unit : %]

17

길고양이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

- 길고양이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꼽은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음
- 60대 이상, 지역 동물 단체 소속 활동가, 돌봄 활동 10년 이상 케어테이커는 '돌보는 길고양이 부상, 질병 등 치료비에 대한 부담'
- 20대 이하는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을 응답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돌봄 활동 기간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Base)	(1543)	(1476)	(67)	(298)	(381)	(410)	(328)	(126)	(1379)	(117)	(260)	(274)	(445)	(309)	(135)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32.9	32.9	32.8	27.2	37.8	34.6	32.0	28.6	33.8	25.6	38.8	32.1	32.1	35.3	19.3
돌보는 길고양이 부상, 질병 등 치료비에 대한 부담	27.7	27.7	28.4	19.1	21.5	30.5	32.9	44.4	26.7	43.6	20.0	24.5	28.5	34.0	43.0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21.5	21.8	13.4	35.9	23.9	14.4	17.1	14.3	21.0	21.4	25.0	22.6	19.3	15.2	24.4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 진행 필요 시	6.8	6.4	14.9	6.0	6.3	8.8	6.4	4.8	6.9	5.1	5.4	5.8	7.4	8.4	5.2
TNR 문제 (지자체 예산 부족, TNR 하지 않는 주변 케어테이커 문제 등)	6.0	6.0	6.0	7.0	6.6	6.6	4.6	3.2	6.4	2.6	5.4	9.5	7.4	3.6	3.0
사료비에 대한 부담	2.4	2.4	1.5	2.3	1.0	2.0	4.3	3.2	2.6	-	3.1	2.6	2.0	2.3	3.7
기타	1.1	1.2	-	0.7	1.8	0.7	0.9	1.6	1.1	-	0.4	0.4	1.8	1.0	1.5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1.6	1.6	3.0	1.7	1.0	2.4	1.8	-	1.5	1.7	1.9	2.6	1.3	0.3	-

[Base : Total (n=1543), Unit : %]

18

길고양이 돌봄 월 소요 비용 (1/3)

- 길고양이 돌봄 월 소요 비용으로 '3~5만원', '6~10만원', '11~20만원'이 20% 내외로 유사했으며 평균 비용은 약 16만원 정도
- 연령이 높고 활동기간이 길수록 소요 비용이 높은 경향
-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는 평균 21.6만원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돌봄 활동 기간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Base)	(1543)	(1476)	(67)	(298)	(381)	(410)	(328)	(126)	(1379)	(117)	(260)	(274)	(445)	(309)	(135)
3만원 미만	13.1	12.9	16.4	28.5	17.1	8.3	3.7	4.8	12.8	9.4	25.0	13.1	6.1	3.2	2.2
3~5만원	20.9	20.9	20.9	30.5	23.9	20.0	13.7	11.1	21.5	12.8	33.1	27.7	18.2	13.6	5.9
6~10만원	20.2	20.1	22.4	21.5	24.4	23.4	14.9	7.1	21.0	11.1	23.8	24.1	24.5	14.9	6.7
11~20만원	19.1	19.1	17.9	13.1	18.1	21.5	22.9	18.3	19.1	22.2	12.7	18.2	24.5	23.6	17.0
21~30만원	10.2	10.4	7.5	4.0	6.8	9.8	14.9	24.6	9.8	17.1	2.7	7.3	11.9	17.2	17.0
31~50만원	8.4	8.4	9.0	1.3	3.9	10.2	15.2	15.1	7.9	16.2	2.3	6.2	9.7	12.3	17.8
50만원 이상	8.1	8.2	6.0	1.0	5.8	6.8	14.6	19.0	7.8	11.1	0.4	3.3	5.2	15.2	33.3
Mean (만원)	15.9	15.9	14.4	7.9	12.4	16.3	22.7	25.9	15.5	21.6	7.8	12.3	16.2	22.5	31.7

[Base : Total (n=1543), Unit : %/만원]

19

길고양이 돌봄 월 소요 비용 (2/3)

- 현재 돌보는 개체 수가 많을수록 소요 비용 높아짐
- 자비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도 TNR을 실시하는 층의 돌봄 비용이 2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Total	현재 돌보는 개체 수					TNR 진행방법						
		5마리 미만	5~10마리	11~20마리	21마리 이상	현재는 없음	지자체	자비	동물보호 단체	지자체+ 자비	지자체+ 동물보호 단체	자비+ 동물보호 단체	지자체+ 자비+동물 보호단체
(Base)	(1543)	(582)	(408)	(238)	(211)	(104)	(355)	(237)	(18)	(352)	(30)	(20)	(68)
3만원 미만	13.1	23.7	2.0	0.8	0.5	51.0	9.9	4.2	22.2	2.0	13.3	10.0	-
3~5만원	20.9	38.7	15.7	4.2	0.5	22.1	22.0	20.3	27.8	8.0	20.0	20.0	5.9
6~10만원	20.2	24.2	30.1	11.3	1.4	16.3	23.4	24.9	16.7	13.9	26.7	10.0	14.7
11~20만원	19.1	10.0	28.9	37.4	10.9	5.8	22.3	16.9	27.8	27.8	20.0	20.0	25.0
21~30만원	10.2	1.5	12.3	21.8	20.9	2.9	9.6	17.3	5.6	13.1	16.7	10.0	20.6
31~50만원	8.4	1.7	7.8	16.0	22.7	1.9	6.8	8.9	-	17.0	3.3	10.0	14.7
50만원 이상	8.1	0.2	3.2	8.4	43.1	-	6.2	7.6	-	18.2	-	20.0	19.1
Mean (만원)	15.9	6.9	15.5	23.1	37.9	6.1	14.8	17.3	8.8	25.1	12.0	21.6	26.1

[Base: Total (n=1543), Unit: %/만원]

길고양이 돌봄 월 소요 비용 (3/3)

- 지자체 TNR 만족도 보통 및 불만족 응답자는 TNR 비실시 이유(수술 후 덧난 경험) 응답한 층의 월 평균 소요 비용은 2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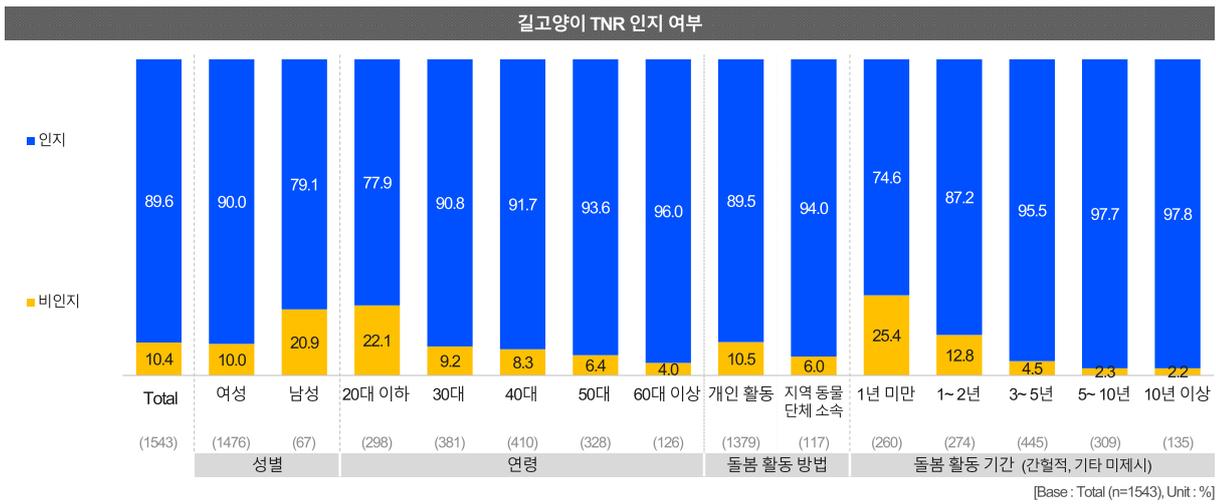
	Total	지자체 TNR 만족도			TNR 비실시 이유				
		만족	보통	불만족	비용 문제 (자비)	시간 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인해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	고양이에게 해로울까봐
(Base)	(1543)	(307)	(264)	(206)	(158)	(120)	(100)	(87)	(60)
3만원 미만	13.1	4.6	7.2	3.4	10.1	10.8	3.0	27.6	6.7
3~5만원	20.9	15.0	17.4	8.3	30.4	21.7	17.0	21.8	11.7
6~10만원	20.2	21.5	17.0	15.5	24.1	25.8	16.0	21.8	28.3
11~20만원	19.1	26.7	21.2	27.2	17.1	19.2	19.0	14.9	18.3
21~30만원	10.2	13.7	10.2	13.6	9.5	10.8	19.0	9.2	11.7
31~50만원	8.4	8.5	13.3	16.5	4.4	7.5	12.0	3.4	11.7
50만원 이상	8.1	10.1	13.6	15.5	4.4	4.2	14.0	1.1	11.7
Mean (만원)	15.9	18.6	20.4	23.8	12.5	14.1	21.7	10.1	19.3

[Base: Total (n=1543), Unit: %/만원]

3. TNR 실시 현황 세부 내용

길고양이 TNR 인지 여부

- 여성, 30대 이상, 3년 이상 활동가는 대부분 TNR 인지, 남성, 20대 이하, 1년 미만 활동가의 비인지율이 20%대
- 지역 동물 단체 소속 케어테이커가 개인 활동하는 케어테이커보다 TNR 더 높게 인지



길고양이 TNR 진행 경험 방법 (1/2)

- '지자체 TNR'과 '지자체 TNR + 자비 TNR'이 각각 32.9%, 32.6%로 유사
- 지자체 TNR 경험률 74.5%
- 30대 이하 케어테이커는 주로 지자체 TNR 실시
- 50대 이상 및 지역 동물단체 케어테이커는 지자체 TNR + 자비 TNR 비율이 더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Base)	(1080)	(1032)	(48)	(135)	(261)	(307)	(263)	(114)	(946)	(107)
지자체 TNR	32.9	32.7	37.5	48.1	36.8	29.6	25.9	30.7	33.4	29.0
지자체 TNR + 자비를 들여 TNR	32.6	33.2	18.8	19.3	28.0	32.2	40.7	41.2	32.0	35.5
자비를 들여 TNR	21.9	21.7	27.1	23.0	21.8	23.8	22.1	15.8	23.6	9.3
지자체 TNR + 자비를 들여 TNR + 동물보호단체 TNR 모두 경험 함	6.3	6.1	10.4	2.2	6.5	7.2	6.1	8.8	5.3	14.0
지자체 TNR + 동물보호단체 TNR	2.8	2.6	6.3	1.5	2.3	3.9	3.0	1.8	2.4	6.5
자비를 들여 TNR + 동물보호단체 TNR	1.9	1.9	-	3.7	1.9	1.6	1.5	0.9	1.8	1.9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지원 받아서 TNR	1.7	1.7	-	2.2	2.7	1.6	0.8	0.9	1.5	3.7
지자체 TNR	74.5	74.6	72.9	71.1	73.6	73.0	75.7	82.5	73.2	85.0
자비를 들여 TNR	62.7	63.0	56.3	48.1	58.2	64.8	70.3	66.7	62.7	60.7

[Base: 해당 문항 응답자 (n=1080), Unit: %]

24

길고양이 TNR 진행 경험 방법 (2/2)

- 2년 이하 케어테이커와 5마리 미만 돌보는 경우 '지자체 TNR'만 실시한 비율이 더 높았음
- 10년 이상 케어테이커와 11마리 이상 돌보는 경우 '지자체 TNR + 자비를 들여 TNR' 비율 더 높았음

	Total	돌봄 활동 기간					현재 돌보는 개체 수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마리 미만	5~10마리	11~20마리	21마리 이상	현재는 없음
(Base)	(1080)	(104)	(164)	(354)	(283)	(129)	(310)	(303)	(213)	(206)	(48)
지자체 TNR	32.9	52.9	41.5	32.5	26.9	19.4	43.9	30.4	26.3	24.8	41.7
지자체 TNR + 자비를 들여 TNR	32.6	15.4	27.4	38.7	34.3	41.1	17.1	34.3	42.7	46.1	18.8
자비를 들여 TNR	21.9	26.0	27.4	17.5	21.2	18.6	31.0	24.8	13.1	12.1	27.1
지자체 TNR + 자비를 들여 TNR + 동물보호단체 TNR 모두 경험 함	6.3	1.0	0.6	4.2	10.2	16.3	1.3	5.6	9.9	12.1	2.1
지자체 TNR + 동물보호단체 TNR	2.8	2.9	-	2.8	4.2	2.3	2.6	3.0	2.8	2.4	4.2
자비를 들여 TNR + 동물보호단체 TNR	1.9	1.0	2.4	1.1	2.5	2.3	1.9	0.7	2.8	2.4	2.1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지원 받아서 TNR	1.7	1.0	0.6	3.1	0.7	-	2.3	1.3	2.3	-	4.2
지자체 TNR	74.5	72.1	69.5	78.2	75.6	79.1	64.8	73.3	81.7	85.4	66.7
자비를 들여 TNR	62.7	43.3	57.9	61.6	68.2	78.3	51.3	65.3	68.5	72.8	50.0

[Base: 해당 문항 응답자 (n=1080), Unit: %]

25

길고양이 TNR 실시 이유와 TNR 진행 방법

	Total	돌봄 활동 기간					TNR 진행방법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지자체	자비	동물보호단체	지자체+자비	지자체+동물보호단체	자비+동물보호단체	지자체+자비+동물보호단체
(Base)	(1285)	(168)	(215)	(399)	(294)	(129)	(354)	(237)	(18)	(351)	(30)	(20)	(68)
연이은 출산 등 건강 문제 방지	46.8	46.4	44.7	49.6	46.9	43.4	48.9	56.5	44.4	41.6	43.3	40.0	33.8
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 및 관리 (무분별한 증가 방지)	37.0	42.3	40.9	35.6	33.0	36.4	33.3	34.2	11.1	40.7	36.7	40.0	36.8
영역 싸움 방지	12.0	9.5	12.1	13.8	11.9	12.4	11.0	8.9	16.7	12.5	10.0	10.0	17.6
주변 혐오 민원 해소 (발정기 소음)	8.5	4.8	7.0	7.3	11.9	10.9	9.6	5.5	16.7	9.4	6.7	20.0	10.3
꾸준한 급식소 운영을 위해	2.6	1.8	0.5	3.8	3.1	4.7	2.0	0.8	5.6	4.3	6.7	-	8.8
고양이 학대 예방 차원	2.5	3.0	3.7	1.8	2.0	1.6	3.7	1.7	11.1	2.3	-	-	2.9
TNR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음	1.4	1.2	0.9	0.8	2.0	1.6	1.4	0.4	-	1.7	3.3	-	1.5
기타	0.2	-	0.5	-	0.7	-	-	-	-	-	-	-	2.9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285), Unit: %]

26

한해 평균 TNR 해주는 개체 수(1/2)

- 한해 평균 TNR 해주는 개체 수는 '1~2마리' 41.3%, '3~5마리' 33.1% 순으로 응답, 평균 5.1마리
- 30대 이하는 '1~2마리'가 50% 이상
- 50대 이상과 지역 동물단체 소속 활동가는 '6마리 이상' 비율이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단체 소속
(Base)	(1034)	(989)	(45)	(130)	(254)	(294)	(251)	(105)	(900)	(107)
1~2마리	41.3	41.1	46.7	56.2	50.4	41.2	30.7	26.7	44.2	20.6
3~5마리	33.1	33.2	31.1	27.7	31.5	34.7	35.5	33.3	31.9	41.1
6~10마리	16.0	16.0	15.6	7.7	11.8	17.3	20.3	21.9	14.7	25.2
11~20마리	6.4	6.6	2.2	2.3	3.9	5.1	8.4	16.2	6.3	6.5
21~30마리	1.4	1.3	2.2	0.8	1.6	1.0	2.4	-	1.3	1.9
30마리 이상	1.9	1.9	2.2	5.4	0.8	0.7	2.8	1.9	1.6	4.7
평균 (마리)	5.1	5.2	4.8	4.7	4.2	4.6	6.2	6.6	4.9	6.9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034), Unit: %/마리]

27

한해 평균 TNR 해주는 개체 수(2/2)

- 돌봄 활동 기간 2년 이하의 경우 '1~2마리'가 50% 이상이었음
- 자비 TNR만 실시한 경우 '1~2마리' 비율이 71.5%
- 지자체+자비 TNR 및 지자체+자비 TNR+동물보호단체 통한 TNR을 모두 해본 층은 평균 TNR 개체 수가 많았음

	Total	돌봄 활동 기간					TNR 진행방법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지자체	자비	동물보호단체	지자체+자비	지자체+동물보호단체	자비+동물보호단체	지자체+자비+동물보호단체
(Base)	(1034)	(95)	(161)	(339)	(273)	(122)	(337)	(214)	(16)	(344)	(26)	(20)	(66)
1~2마리	41.3	57.9	50.9	37.5	37.7	19.7	46.9	71.5	68.8	21.2	30.8	45.0	13.6
3~5마리	33.1	31.6	34.2	35.4	33.3	36.1	32.9	21.0	18.8	39.8	50.0	45.0	36.4
6~10마리	16.0	6.3	10.6	19.5	17.6	22.1	14.2	4.7	6.3	23.5	11.5	5.0	31.8
11~20마리	6.4	2.1	3.1	5.6	7.3	15.6	3.6	2.3	6.3	11.0	3.8	5.0	10.6
21~30마리	1.4	-	0.6	0.9	1.8	3.3	1.2	-	-	2.3	-	-	3.0
30마리 이상	1.9	2.1	0.6	1.2	2.2	3.3	1.2	0.5	-	2.0	3.8	-	4.5
평균(마리)	5.1	3.6	3.8	5.0	5.6	7.7	4.4	2.8	3.3	6.7	5.1	3.7	8.0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034), Unit: %/마리]

| 28

자비로 TNR 참여하는 이유(1/2)

- 자비로 TNR에 참여하는 이유로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돼서'가 45.3%로 가장 높았음
-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는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돼서'가 더욱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단체 소속
(Base)	(677)	(650)	(27)	(65)	(152)	(199)	(185)	(76)	(593)	(65)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돼서	45.3	45.7	35.9	45.6	50.7	39.6	49.1	39.6	43.6	58.9
지자체 TNR 후, 고양이가 잘못 될까 염려돼서	30.8	31.1	25.6	24.4	31.0	34.0	27.0	37.4	31.8	25.6
지자체 TNR 신청 및 과정이 불편해서	17.0	16.5	28.2	21.1	9.9	21.3	16.5	18.7	17.2	13.3
지자체 TNR 방법을 몰라서	3.4	3.2	7.7	4.4	3.8	1.9	5.2	1.1	3.7	1.1
지자체 TNR 신청 후 오래 걸려서/시기가 안 맞아서	1.5	1.4	2.6	2.2	2.3	1.9	0.4	-	1.5	-
기타	2.0	2.1	-	2.2	2.3	1.5	1.7	3.3	2.1	1.1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677), Unit: %]

| 29

자비로 TNR 참여하는 이유(2/2)

- 자비 TNR만 실시한 층은 '지자체 TNR 후, 고양이가 잘못 될까 염려돼서'가 41.8%로 가장 높았음
- 자비 TNR과 지자체 TNR을 함께 실시한 층은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돼서'가 50% 이상으로 나타남

	Total	돌봄 활동 기간					TNR 진행방법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자비	지자체+자비	지자체+동물보호단체	지자체+자비+동물보호단체
(Base)	(677)	(45)	(95)	(218)	(193)	(101)	(237)	(352)	(20)	(68)
지자체 TNR 예산이 없고 마감돼서	45.3	46.3	43.8	47.1	45.9	43.6	21.1	55.5	61.5	50.0
지자체 TNR 후, 고양이가 잘못 될까 염려돼서	30.8	26.8	32.0	26.6	33.9	36.4	41.8	26.2	23.1	30.3
지자체 TNR 신청 및 과정이 불편해서	17.0	18.3	19.5	17.8	15.5	12.7	29.3	13.1	7.7	9.1
지자체 TNR 방법을 몰라서	3.4	7.3	1.6	3.4	2.6	1.8	6.5	0.9	7.7	-
지자체 TNR 신청 후 오래 걸려서/시기가 안 맞아서	1.5	-	1.6	2.4	0.4	2.7	0.4	2.0	-	3.0
기타	2.0	1.2	1.6	2.7	1.7	2.7	0.9	2.3	-	7.6

[Base : 해당문항 응답자 (n=677), Unit : %]

30

자비로 참여 시 한해 평균 TNR 비용(1/2)

- 자비로 참여 시 한해 평균 TNR 비용은 '30만원 미만' 39.6%로 가장 높았음
- 남성 및 30대 이하는 '30만원 미만'이 더욱 높았으며, 40대 이상은 '50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단체 소속
(Base)	(677)	(650)	(27)	(65)	(152)	(199)	(185)	(76)	(593)	(65)
30만원 미만	39.6	39.2	48.1	44.6	47.4	33.7	40.0	34.2	39.5	40.0
30~50만원	33.4	33.8	22.2	36.9	28.9	39.7	30.8	28.9	33.9	30.8
50~100만원	19.9	19.8	22.2	13.8	15.8	21.1	21.1	27.6	19.9	18.5
100~200만원	5.5	5.5	3.7	4.6	5.9	5.0	4.9	7.9	5.6	4.6
200만원 이상	1.6	1.5	3.7	-	2.0	0.5	3.2	1.3	1.2	6.2

[Base : 해당문항 응답자 (n=677), Unit : %]

31

자비로 참여 시 한해 평균 TNR 비용(2/2)

- 돌봄 활동 10년 이상 케어테이커는 한해 평균 50만원 이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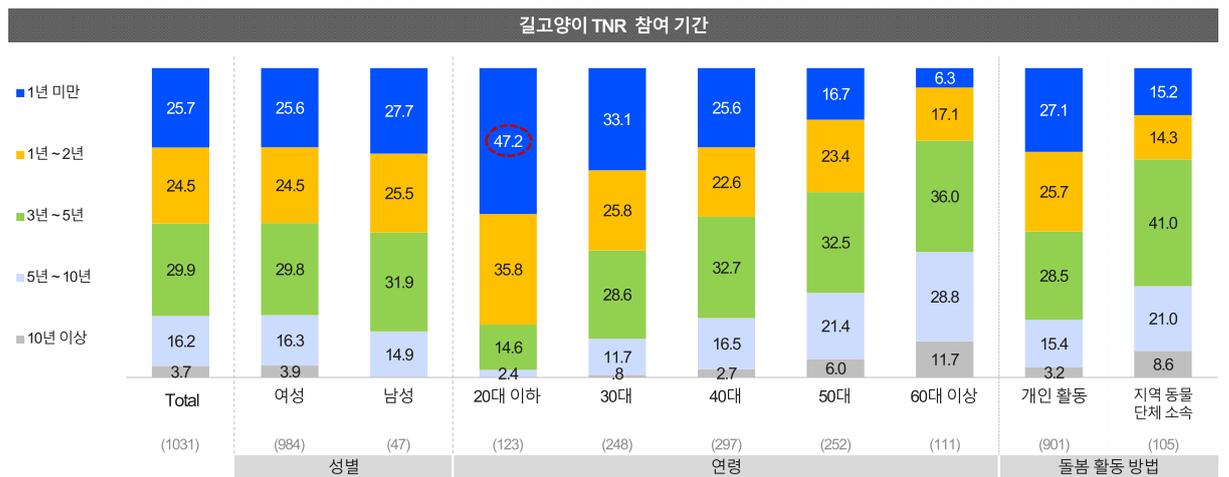
	Total	돌봄 활동 기간					TNR 진행방법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자비	지자체+자비	지자체+동물보호단체	지자체+자비+동물보호단체
(Base)	(677)	(45)	(95)	(218)	(193)	(101)	(237)	(352)	(20)	(68)
30만원 미만	39.6	48.9	41.1	39.0	42.5	28.7	38.8	39.8	30.0	44.1
30~50만원	33.4	40.0	31.6	36.7	30.6	27.7	34.6	31.0	50.0	36.8
50~100만원	19.9	8.9	24.2	19.7	16.6	29.7	19.4	22.2	10.0	13.2
100~200만원	5.5	2.2	3.2	4.1	7.8	8.9	5.5	6.0	-	4.4
200만원 이상	1.6	-	-	0.5	2.6	5.0	1.7	1.1	10.0	1.5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677), Unit: %]

| 32

길고양이 TNR 참여 기간 (1/2)

- 길고양이 TNR 참여 기간에 대해 다양하게 분포하는 가운데, '3년~5년'이 29.9%로 가장 높았음
- 20대 이하는 '1년 미만'이 47.2%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참여 기간이 길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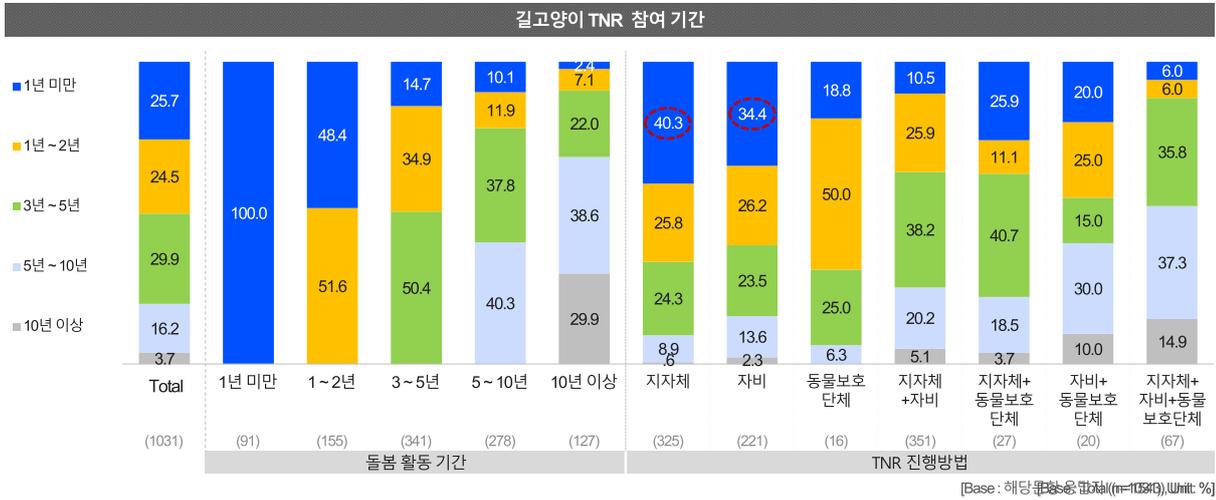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031), Unit: %]

| 33

길고양이 TNR 참여 기간 (2/2)

- 길고양이 TNR 참여 기간은 돌봄 활동 기간과 비례하는 경향임
- 지자체 TNR, 자비 TNR만 실시한 경우 '1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자비 TNR을 모두 실시한 층은 상대적으로 참여 기간이 길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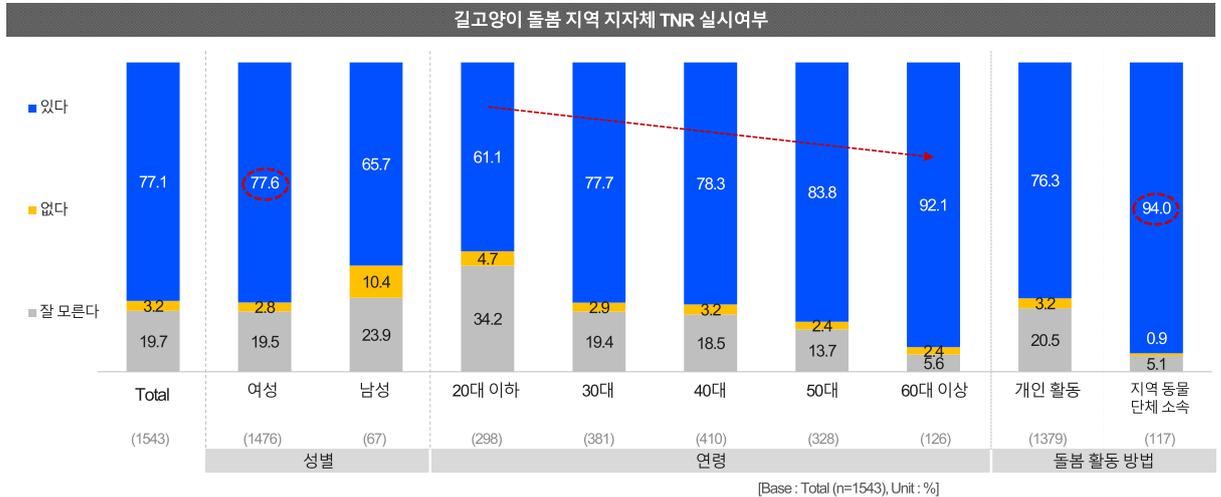


34

4. 케어테이커의 TNR 평가 및 참여 계획

길고양이 돌봄 지역 지자체 TNR 실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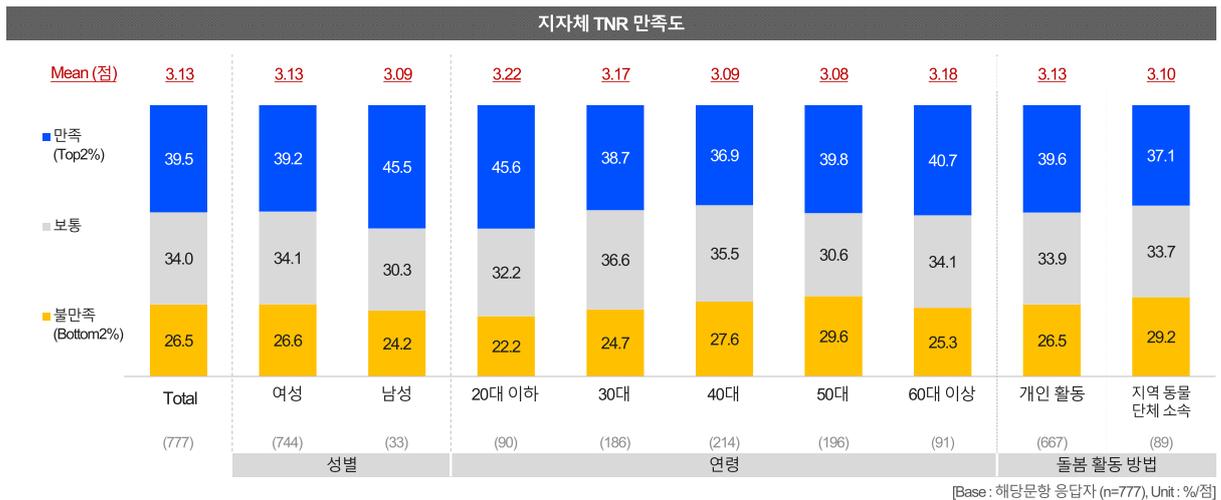
- 현재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지역의 TNR 실시여부에 대해 77.1%가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며, 19.7%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연령이 많을수록, 지역 동물단체 소속 활동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욱 높았음



| 36

지자체 TNR 만족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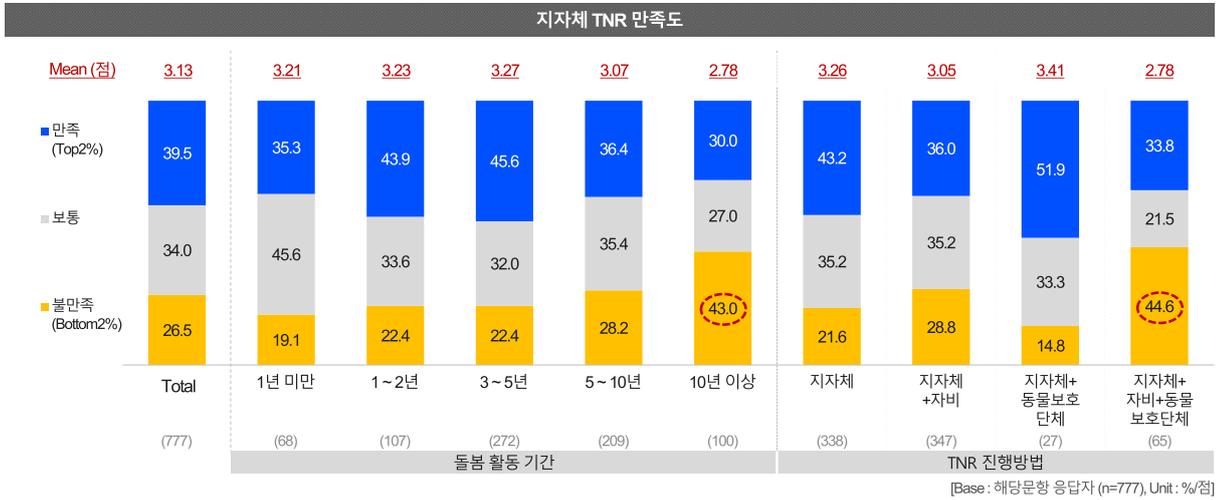
- 지자체 TNR에 39.5%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37

지자체 TNR 만족도 (2/2)

- 돌봄 활동 10년 이상 케어테이커 및 지자체+자비+동물보호단체 TNR을 모두 실시해본 층에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음



38

지자체 민원 경험 (1/2)

- 응답자의 51.3%가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진 경험이 있으며 '전화 도움 요청' 이 31%로 가장 높았음
- 50대 이상 및 지역 동물단체 소속 활동가의 민원 경험률이 60% 이상으로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Base)	(1243)	(1193)	(50)	(195)	(313)	(345)	(280)	(110)	(1104)	(107)
지자체에 전화 도움 요청	31.0	30.8	34.0	19.5	26.8	25.8	41.1	53.6	31.2	28.0
지자체 + 국민신문고 민원 및 도움 요청	12.4	12.2	18.0	3.1	14.1	13.6	15.4	12.7	10.8	29.9
국민신문고 민원 및 도움 요청	8.0	8.0	6.0	7.2	12.1	8.1	5.4	3.6	7.6	11.2
방법은 알지만 민원을 넣은 적은 없다	21.4	21.4	22.0	21.5	18.5	27.0	21.1	12.7	21.9	15.9
도움 요청할 일이 없었다	21.3	21.7	12.0	36.9	24.6	20.0	11.8	12.7	22.3	12.1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6.0	5.9	8.0	11.8	3.8	5.5	5.4	4.5	6.3	2.8
민원 경험률 (%)	51.3	51.0	58.0	29.7	53.0	47.5	61.8	70.0	49.5	69.2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243), Unit: %]

39

지자체 민원 경험 (2/2)

- 돌봄 활동 기간이 길수록 민원 경험이 높았음
- 지자체 TNR 불만족 케어테이커와 수술 후 덧난 경험 등으로 TNR 비실시 케어테이커는 민원 경험을 70%로 높았음

	Total	돌봄 활동 기간					지자체 TNR 만족도			TNR 비실시 이유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만족	보통	불만족	비용 문제 (자비)	시간 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인해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	고양이에게 해로울까봐
(Base)	(1243)	(161)	(208)	(391)	(287)	(124)	(291)	(251)	(201)	(151)	(108)	(99)	(67)	(55)
지자체에 전화 도움 요청	31.0	21.1	22.1	33.5	35.9	48.4	36.1	36.3	44.3	29.8	21.3	51.5	11.9	27.3
지자체 + 국민신문고 민원 및 도움 요청	12.4	6.2	3.8	13.6	19.9	18.5	15.5	15.1	19.9	4.0	15.7	11.1	4.5	9.1
국민신문고 민원 및 도움 요청	8.0	8.7	8.7	8.7	5.6	4.8	8.6	6.8	8.0	5.3	10.2	5.1	4.5	5.5
방법은 알지만 민원을 넣은 적은 없다	21.4	21.7	26.9	21.2	19.5	15.3	15.5	18.7	17.4	25.8	29.6	20.2	28.4	32.7
도움 요청할 일이 없었다	21.3	34.2	29.3	17.4	15.3	10.5	21.6	18.3	4.5	25.2	15.7	7.1	37.3	20.0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6.0	8.1	9.1	5.6	3.8	2.4	2.7	4.8	6.0	9.9	7.4	5.1	13.4	5.5
민원 경험률 (%)	51.3	36.0	34.6	55.8	61.3	71.8	60.1	58.2	72.1	39.1	47.2	67.7	20.9	41.8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243), Unit: %]

| 40

TNR 활동 시 중요한 요소 (1/2)

- TNR 활동 시 중요한 요소로 '중성화 수술(수술 후 안정성 보장)'을 응답한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음
- 20대 이하는 '제자리 방사 여부', 지역 동물단체 소속 케어테이커들은 '방사 후 고양이 밥 급여, 돌봄 및 모니터링'을 특히 중요시 함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Base)	(1257)	(1207)	(50)	(189)	(318)	(348)	(286)	(116)	(1115)	(108)
중성화 수술(수술 후 안정성 보장)	73.1	73.8	56.0	71.4	75.2	73.0	74.1	68.1	74.2	65.7
제자리 방사 여부	36.9	37.4	24.0	52.9	39.6	34.2	28.7	31.9	37.7	33.3
방사 후 고양이 밥 급여, 돌봄 및 모니터링	36.0	36.1	32.0	27.0	38.1	41.1	33.9	34.5	34.9	43.5
포획 전 모니터링 (개체 파악 및 임신, 수유 여부 파악)	21.2	20.8	30.0	17.5	23.3	20.1	22.4	21.6	20.5	26.9
안전한 포획 방법	19.5	19.4	22.0	23.3	19.5	19.5	15.4	23.3	19.6	17.6
돌보는 케어테이커 유무 여부	8.3	8.4	6.0	10.1	9.1	6.0	10.8	3.4	7.9	11.1
청결하고 안정적인 급식소 여부	7.2	7.1	10.0	6.3	7.2	6.9	8.7	6.0	6.6	8.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체카드 정확한 정보(사진 등)	5.7	5.7	6.0	7.4	7.5	4.6	4.5	4.3	5.8	3.7
잘 모르겠다	0.4	.2	4.0	-	-	.9	.7	-	.4	.9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1257), Unit: %]

| 41

TNR 활동 시 중요한 요소 (2/2)

- TNR 진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한 층은 '방사 후 고양이 밥 급여, 돌봄 및 모니터링'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동물보호 단체를 통해서 TNR을 실시한 층은 '제자리 방사 여부'와 '안전한 포획 방법'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Total	TNR 진행방법							지자체 TNR 만족도		
		지자체	자비	동물보호 단체	지자체+ 자비	지자체+ 동물보호 단체	자비+ 동물보호 단체	지자체+ 자비+동물 보호단체	만족	보통	불만족
(Base)	(1257)	(349)	(234)	(17)	(352)	(29)	(20)	(68)	(306)	(263)	(206)
중성화 수술(수술 후 안정성 보장)	73.1	74.2	73.1	76.5	72.4	75.9	65.0	67.6	70.6	76.0	73.3
제자리 방사 여부	36.9	39.8	39.3	47.1	31.5	27.6	40.0	36.8	37.9	34.2	34.5
방사 후 고양이 밥 급여, 돌봄 및 모니터링	36.0	32.1	34.6	29.4	40.6	37.9	50.0	44.1	38.6	33.8	37.9
포획 전 모니터링 (개체 파악 및 임신, 수유 여부 파악)	21.2	19.5	21.8	11.8	22.4	24.1	35.0	30.9	17.3	23.6	26.2
안전한 포획 방법	19.5	20.1	20.1	41.2	16.2	20.7	10.0	17.6	19.3	19.8	14.1
돌보는 케어데이터커 유무 여부	8.3	5.7	9.4	11.8	8.5	17.2	5.0	7.4	9.5	5.3	7.3
청결하고 안정적인 급식소 여부	7.2	8.0	8.1	5.9	7.7	3.4	-	2.9	8.8	6.5	6.8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체카드 정확한 정보(사진 등)	5.7	7.2	6.0	-	4.3	3.4	5.0	4.4	3.3	5.3	8.7
잘 모르겠다	0.4	-	.4	-	1.1	-	-	-	.3	.8	.5

[Base : 해당문항 응답자 (n=1257), Unit : %]

42

TNR 참여하지 않는 이유 (1/2)

- TNR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문제'를 꼽은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음
- 남성 및 20대 이하는 'TNR 비용 문제'와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 TNR을 실시 하지 않았음
- 40대 이상 및 지역 동물단체 소속 활동가는 '지자체 TNR 경험 시 수술 후 덧난 경험'이 높았음

	Total	성별		연령					돌봄 활동 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인 활동	지역 동물 단체 소속
(Base)	(610)	(591)	(19)	(109)	(169)	(169)	(120)	(43)	(556)	(37)
비용 문제로(자비로 할 경우)	25.9	25.7	31.6	33.9	24.3	27.8	20.8	18.6	26.3	13.5
TNR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19.7	20.0	10.5	14.7	19.5	21.9	23.3	14.0	19.8	24.3
지자체 TNR 경험 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인해	16.4	16.4	15.8	5.5	11.8	20.7	22.5	27.9	15.8	32.4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	14.3	14.0	21.1	23.9	13.6	11.8	14.2	2.3	14.2	5.4
고양이에게 해로울까봐	9.8	9.6	15.8	4.6	10.7	8.9	10.0	23.3	10.3	8.1
먹이만 주는 것에 만족해서	4.8	4.7	5.3	4.6	4.1	5.9	2.5	9.3	4.9	5.4
지자체 TNR이 무엇인지 몰라서	3.0	3.0	-	4.6	4.1	-	4.2	2.3	2.5	8.1
중성화 필요성을 못 느껴서	.2	.2	-	-	.6	-	-	-	.2	-
기타	6.1	6.3	-	8.3	11.2	3.0	2.5	2.3	6.1	2.7

[Base : 해당문항 응답자 (n=610), Unit : %]

43

TNR 참여하지 않는 이유 (2/2)

- 돌봄 활동 1년 미만자는 '비용 문제'와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높았음
- 돌봄 활동 10년 이상 케어테이커와 지자체 TNR 불만족 케어테이커는 '지자체 TNR 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TNR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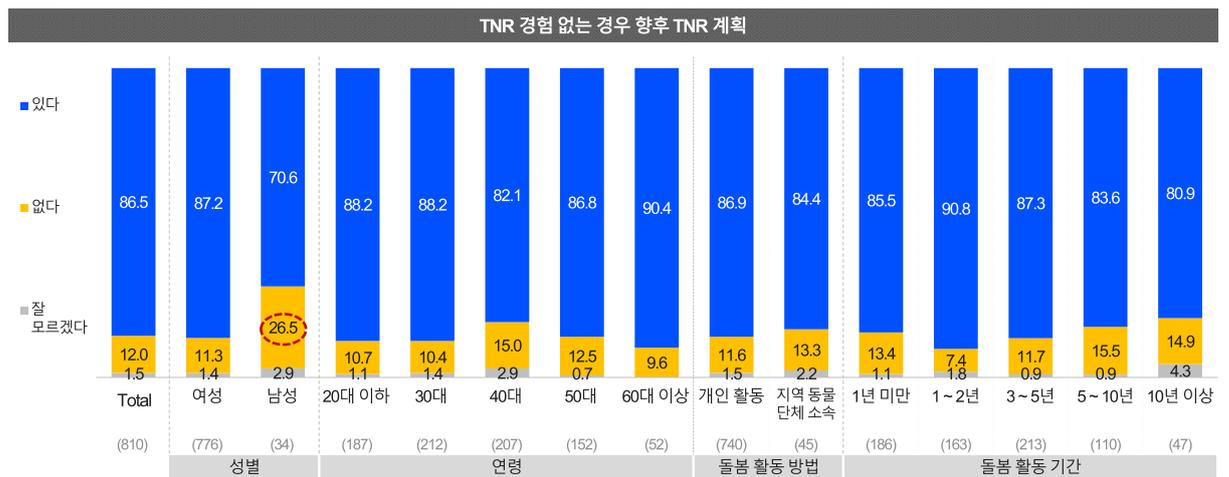
	Total	돌봄 활동 기간					지자체 TNR 만족도		
		1년 미만	1~2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만족	보통	불만족
(Base)	(610)	(96)	(114)	(174)	(116)	(52)	(69)	(100)	(79)
비용 문제로(자비로 할 경우)	25.9	33.3	28.9	24.7	19.0	17.3	29.0	18.0	19.0
TNR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19.7	13.5	19.3	20.1	30.2	13.5	29.0	26.0	20.3
지자체 TNR 경험 시 수술 후 덧난 경험으로 인해	16.4	8.3	8.8	19.5	19.8	38.5	11.6	27.0	41.8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	14.3	24.0	16.7	12.1	5.2	1.9	5.8	7.0	2.5
고양이에게 해로울까봐	9.8	9.4	9.6	9.8	11.2	13.5	10.1	10.0	12.7
먹이만 주는 것에 만족해서	4.8	5.2	6.1	4.6	3.4	3.8	2.9	3.0	-
지자체 TNR이 무엇인지 몰라서	3.0	2.1	4.4	2.9	2.6	3.8	1.4	2.0	1.3
중성화 필요성을 못 느껴서	2	-	.9	-	-	-	-	-	-
기타	6.1	4.2	5.3	6.3	8.6	7.7	10.1	7.0	2.5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610), Unit: %]

44

TNR 경험 없는 경우, 향후 TNR 계획

- TNR 실시 경험이 없는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86.5%가 계획이 있다 응답
- 남성은 실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6.5%로 여성에 비해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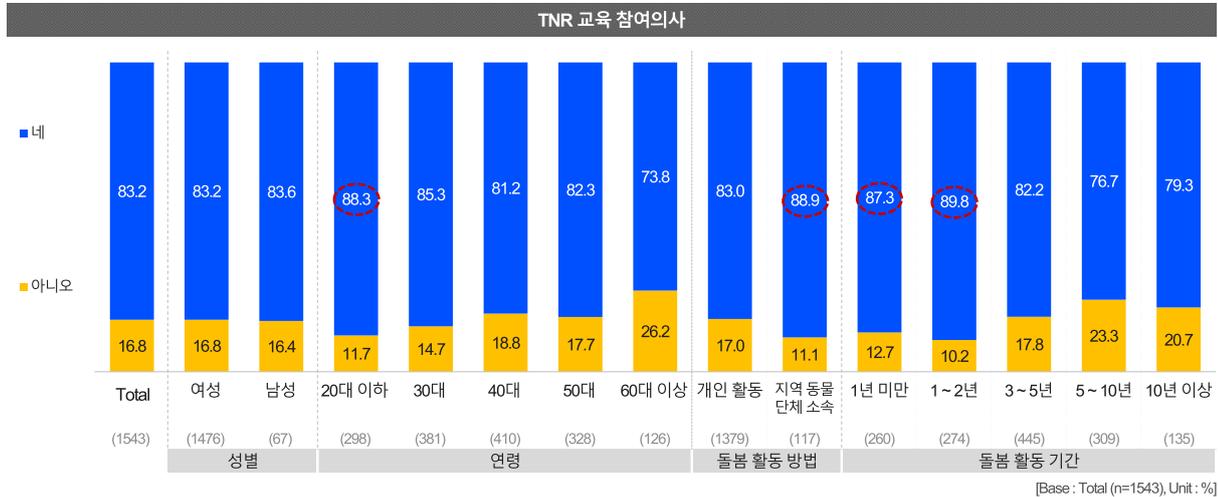


[Base: 해당문항 응답자 (n=810), Unit: %]

45

TNR 교육 참여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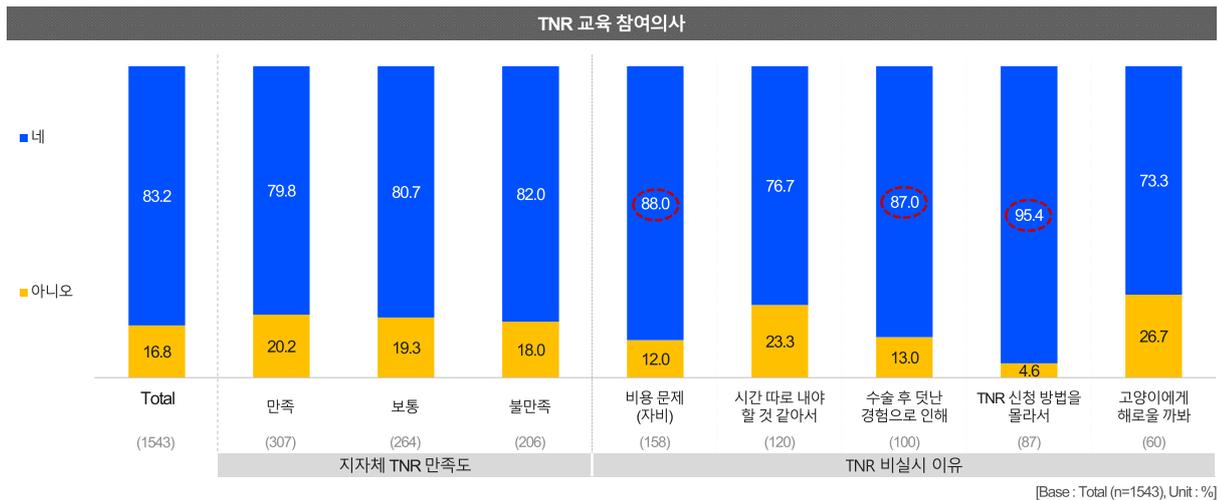
- 응답자의 83.2%가 향후 TNR 교육 진행 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응답
- 특히 20대 이하, 지역 동물단체 소속 활동가, 돌봄 활동 기간 2년 이하 케어테이커의 교육 참여 의향이 더욱 높았음



46

TNR 교육 참여의사

- TNR 비실시 이유가 'TNR 신청 방법을 몰라서'인 경우 교육 참여의향이 95.4%로 크게 높았음



47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 넘어서기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고양이 신드롬

고양이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물이다. 현재 고양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중의 하나로서 인류의 독보적인 동물친구인 개와 함께 2대 반려동물로 번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양이 반려 가정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2018년에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개 602마리, 고양이 258만 마리로 반려 마리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동물보호인식조사, 검역본부). 개의 증가율 18.7%도 만만치 않지만 고양이는 무려 102%로 두 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고양이가 주인공인 SNS나 고양이를 주제로 한 출판물까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고양이는 거의 신드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양이와의 유대와 돌봄을 통해 즐거움과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반면 고양이와 사람들의 접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양이의 동물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상업적인 고양이 번식과 매매, 무책임한 소유자들의 동물 매입과 유기 및 방치로 인한 복지 훼손, 특히 보호 체계가 취약한 길고양이에 대한 엽기적이며 반생명적 학대행위 등이 주요한 예이다.

길고양이 학대자들 행위의 이면

고양이 학대자들의 학대 행위는 대개 법적 지위가 취약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벌어진다. 학대 대상을 물색하기 쉽고 사람에게 대한 혐오나 학대보다 사회적인 제재와 부정적 평판이 훨씬 덜해 상대적으로 행위에 따르는 도덕적·사회적 책임과 법적 처벌의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길고양이를 박해하고 학대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들의 저열한 욕구 충족과 책임 회피를 위해 길고양이가 선택되었을 뿐인 것이다.

이들은 종종 여성 길고양이 케어테이커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또는 소외되고 외로운 상황에서 돌출 행동을 통해 또래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한 도구로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기도 한다. 이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 학대 행위를 공유하고 상호 공감하며 이를 더욱 독려하는 모습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들의 비겁함과 마비된 이성,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길고양이 학대자들의 변명

일부 학대자들은 길고양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엽기적 학대 행위에 생태적·사회적인 사유나 명분이 있는 것처럼 주변을 호도하며 아직 가치 판단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 등의 동조나 추가적인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일견 그럴싸해 보이는 이들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학대와 무관한 일반적인 과학적 사실들을 차용해 온 것들로서 명백한 사실의 오용이며 학대 행위의 변이 될 수 없다.

고양이의 생태와 행동은 상당한 수준의 기초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고양이가 인류의 반려동물이 된 과정은 물론 그들의 행동과 생태는 개보다 더 복잡하다. 학대자들의 변명을 반박하는 일은 무용하다. 이미 학대를 위한 학대를 저지르는 그들은 알고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대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일부 고개를 가우뚱하거나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이해가 부족한 일부 시민과 정치인 그리고 배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고알못(고양이에 문외한인 분들)들 그리고 학대자들의 가족이나 주변에 강하게 행위 제어 필요성을 알려 주기 위해서다. 사회 일반이 정확한 지식에 기반하여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학대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가능해 지며 이로써 그들의 설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대를 막고 생명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길고양이 학대자들의 변명의 유형과 내용

길고양이 학대자들이 길고양이와 그들을 보살피는 케어테이커들에게 주장하는 학대와 혐오의 사유는 대략 3개 유형, 9개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유형 1.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생태와 관련된 잘못된 이해

- ① 길고양이는 생태계의 파괴자이며 외래종인 '유해종'이라 살처분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 ② 길고양이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도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난다.
- ③ 고양이는 쥐 사냥에 효과적이지 않거나 밥을 줌으로써 쥐를 잡지 않는다.
- ④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다른 지역에 감자기 방사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다.

유형 2. 길고양이 급식/TNR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

- ⑤ tnr을 해도 고양이 개체수는 줄지 않는다/ 총기 포획이 낫다.
- ⑥ 그렇게 좋으면 다 갖다 키워라
- ⑦ 지금 당장 밥 주는 걸 멈춰라

유형 3. 고양이로 인한 피해 호소

- ⑧ 고양이 번/화단 훼손/차 본네트를 긁는다
- ⑨ 고양이가 사람을 핥거나 해친다

유형 1.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생태와 관련된 잘못된 이해에 대해

고양이는 매우 독특한 생태적 특징들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의 이해는 해당 동물들의 보호 뿐 아니라 반려와 공존, 학대 예방을 위해 입법자, 케어테이커, 고양이 반려자, 동물보호관계자, 나아가 고양이와 생태계를 공유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필수적이다.

Geographic Range

Felis catus can be found on every continent except Antarctica, generally in human populated areas. This species can be found on a large number islands as well. Their nearly global distribution can be attributed their domestication by humans; however, there is a large global feral population as well. (Wilkins, 2007)

Biogeographic Regions: nearctic (introduced) ; palaearctic (introduced) ; oriental (native) ; ethiopian (native) ; neotropical (introduced) ; australian (introduced) ; oceanic islands (introduced)

Other Geographic Terms: holarctic ; cosmopolitan

Habitat

Domestic cats primarily live in areas of human habitation and are somewhat constrained to developed areas. Most feral populations live in close proximity to current or past human settlements.

Habitat Regions: temperate ; terrestrial

Other Habitat Features: urban ; suburban ; agricultural

그림 1 고양이들은 현재 극지방을 제외한 전 대륙에 분포하며 이들의 주요 서식지는 인간의 거주지 특히 도시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야생개체들도 사람 정착지 혹은 이전 정착지와 가까운 곳에서 산다(Animal Diversity Web).

1) 고양이의 기원

고양이는 고양이과(Felidae) 동물중 하나로서 사자, 호랑이, 표범, 재규어, 샴, 서벌, 치타, 오셀롯, 야생고양이(*Felis silvestris*), 집고양이(*Felis catus*) 등이 대표적인 고양이과 동물들이다.

집고양이는 야생고양이중 아프리카 기원의 야생고양이가 중동지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지며 ‘가축화’(domestication)된 후손으로 현재 우리가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고양이 포함 한국 내 존재하는 모든 고양이는 살고 있는 지역과 무관 전부 집고양이(*Felis catus*)들이다. 고양이들은 사람의 농경과 정착생활에서 발생하는 쥐, 토끼 등 작은 설치류와 뱀을 포식하는 한편 인간이 배출하는 음식쓰레기를 이용하였고 인류는 그들의 설치류 포식 능력을 높이 사고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어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였다. 이 작고 아름다운 포식자를 불러들이고 전 세계로 퍼뜨린 건 우리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보호 관리 책임은 인간의 것이다.

Economic Importance for Humans: Positive

Aside from the benefit that humans receive from domestic cats as pets, domestic cats are used as model organisms for various biomedical research efforts and have been used as rodent pest control agents for thousands of years. It is likely that cats were first domesticated due to their usefulness as pest control agents.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effort put into mapping the genome of domestic cats. (Morris, 1987; Wilkins, 2007)

Positive Impacts: pet trade ; research and education ; controls pest population

Economic Importance for Humans: Negative

Domestic cats are abundant and overpopula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economic burden in some locations. Feral cats can be a nuisance, and have decreased the abundance and diversity of bird communities at various locations across the globe. Feral cats have also been known to spread parasites and disease to domesticated individuals. Cats can also transmit parasites and disease to humans. For example, domestic cats can pass tapeworms, hookworms and possibly roundworms to humans. (Morris, 1987; Wilkins, 2007)

그림 2 인간이 고양이와 유대를 갖게 된 최초의 주요 사유종 하나는 그들의 사냥 능력 때문이다(Animal Diversity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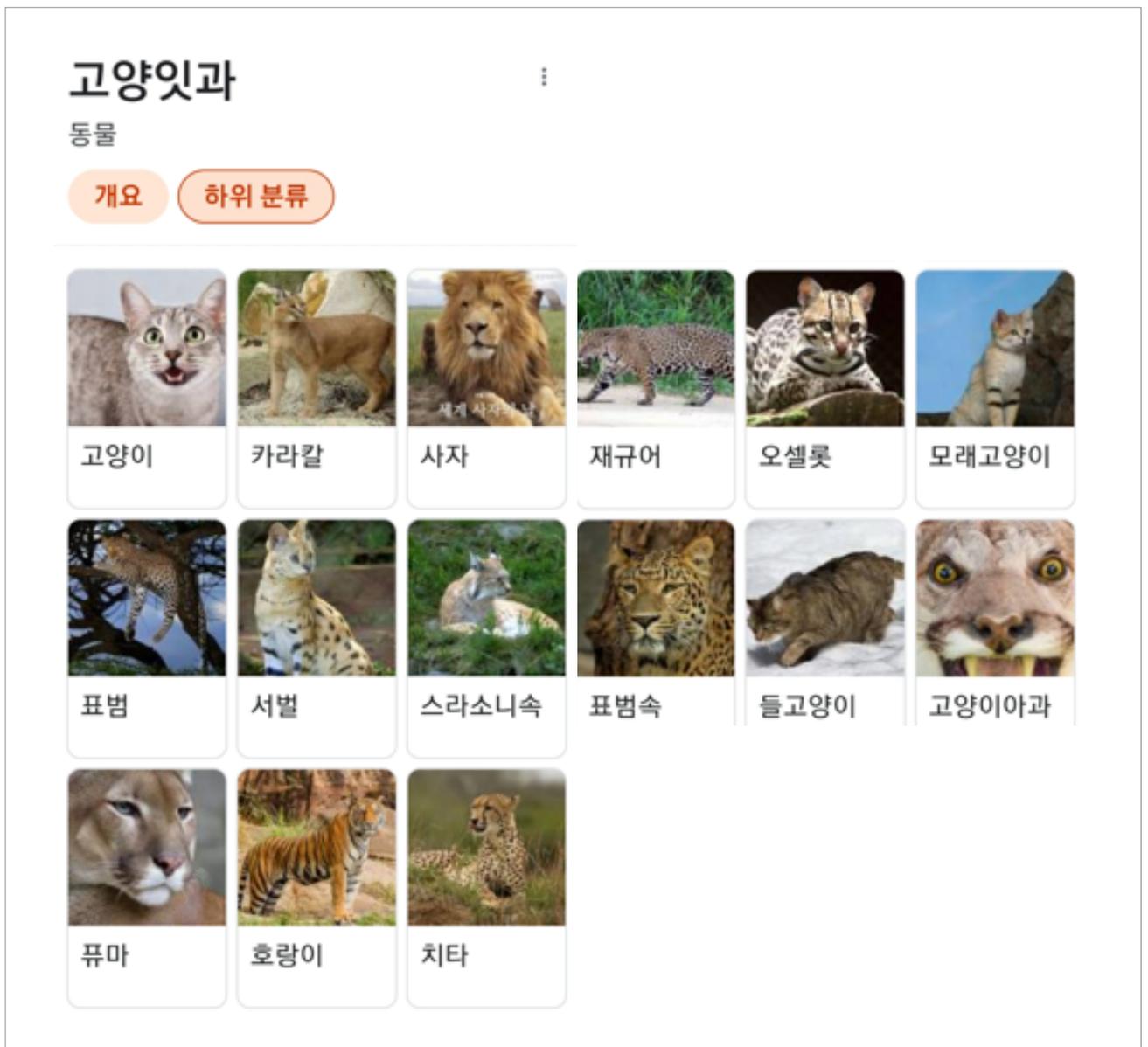


그림 3 고양이과 동물들의 종류

들고양이

동물

개요

하위 분류



수명: 15년 (사육)

보존 상태: 관심 대상 (감소) [생명의 백과사전](#)

학명: *Felis silvestris*

그림 4 야생고양이

Conservation status	
Domesticated	
Scientific classification 	
Kingdom:	Animalia
Phylum:	Chordata
Class:	Mammalia
Order:	Carnivora
Suborder:	Feliformia
Family:	Felidae
Subfamily:	Felinae
Genus:	<i>Felis</i>
Species:	<i>F. catus</i> ^[1]
Binomial name	
<i>Felis catus</i> ^[1]	
Linnaeus, 1758 ^[2]	

그림 5 집고양이

개요
품종
동영상

		
삼고양이	브리티시 쇼트헤어	메인쿤
		
페르시아	랙돌	스핑크스
		
아메리칸 쇼트헤어	아비시니안	엑조틱 쇼트헤어
		
스코티시 폴드	버마고양이	버먼
		
봄베이 고양이	러시안 블루	시베리안 고양이

그림 6 인간이 선택 교배해 만들어낸 소위 품종고양이들

2) 고양이의 각인기와 속칭 ‘야생고양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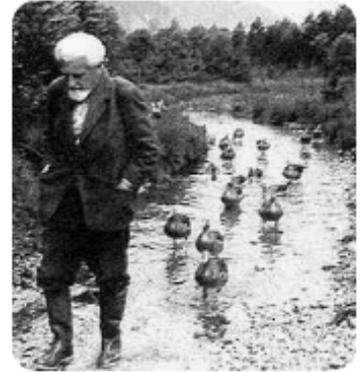
ResearchGate
1 Konrad Lorenz...



Pinterest
Konrad Lorenz studyin...



Semantic Scholar
Figure 1 from Konrad...



Felice Perussia psicologo
Lorenz: Imprinting -...



그림 7 콘라트 로렌츠와 거위- 거위들은 태어나 처음 보살핌을 받은 존재를 어미로 여겨 따른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들고양이 또는 야생고양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는 무엇일까? 고양이는 각인기(sensitive period)를 가지는 동물로서 생후 약 8주까지의 경험이 생애를 크게 좌우한다. 이 기간 동안 사람과 긍정적인 접촉을 가진 아기고양이는 친화적인 고양이로 자라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경계하는 고양이가 된다. ‘들고양이 혹은 야생고양이(feral cat)’로 일컬어지는 고양이들은 대개 후자를 의미하며 한국은 길고양이 박해가 심하여 대부분의 길고양이들도 사람을 경계하는 고양이로 자라나 ‘야생’으로 불리게 된다. 즉, 한국에서 현재 ‘야생고양이’라고 불리는 고양이들은 그가 어디에 살든 집고양이가 다만 사람에 대한 친화성을 배우지 못한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양이들이 본연의 야생고양이들처럼 사람의 도움이나 인간사회에 전혀 기대지 않고 야생 환경에서 오직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3)고양이의 적응력에 따른 다양한 생태적 지위

고양이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동물로서 유실되거나 유기된 이후에도 상당수가 거리에서 살아남아 길고양이 개체군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형성된 길고양이 개체군은 무책임한 자유배회 혹은 유기의 결과이다. 녀석들은 영리하고 은신에 능하고 체구가 작으며 독보적 수준의 수직운동이 가능하다. 도시 생태계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쥐나 생쥐 새 벌레등을 포식하거나 음식쓰레기를 먹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연민하며 제공하는 먹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인간 거주지에서 고양이의 설치류 제어 능력은 독보적이며 설치류 조절자로서 도심생태계 유지에 기여한다. 쥐는 인간의 제어가 불가능하지만(쥐잡기운동의 결과 한국 여우가 멸종되었고 쥐는 번성했다) 고양이는 가장 효과적으로 쥐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기이할

정도로 밀집하여 번성중이며 다량의 음식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쥐와 바퀴벌레 등을 불러들이는 인간이 형성한 주거지에서 고양이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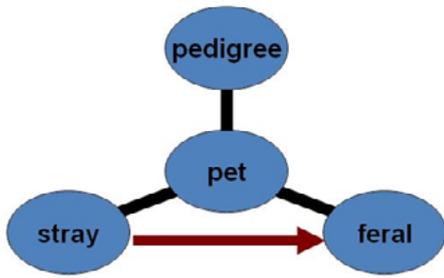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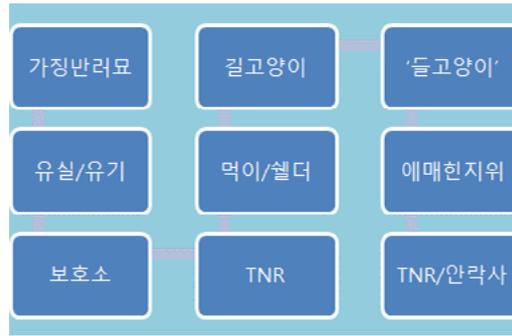


그림 9

4) 고양이의 '유해성'은 사람의 유해성에 부속되어 발생



Project: 4.2.3

Post-eradication monitoring on Macquarie Island

Project Leaders: Justine Shaw

Research in Brief

Sub-Antarctic Macquarie Island has been the object of Australia's most ambitious and expensive eradication program ending in 2014, with cats, rats, mice and rabbits eradicated.

This project will examine different aspects of species and ecosystem recovery on the island following the eradication program, including vegetation, invertebrates, threatened burrowing petrels and a native predator, the brown skua.

그림 10 바다표범 어업자들은 200년 전 호주 맥커리 섬에 일부러 고양이와 토끼를 유입시켰고 쥐와 생쥐는 의도치 않게 사람을 따라 유입되었다. 그 결과 땅에 알을 낳는 고유종 새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포식자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섬의 생명 다양성이 훼손되었고 이에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잔인한 방법을 총 동원하고 막대한비용을 들여 인간이 유입시킨 고양이 토끼 포함 침입종 척추동물들 전원을 박멸시켰다(Threatened Species Recovery Hub).

한국에서 고양이는 법적으로 한번도 ‘유해종’으로 분류된 바 없다. ‘야생화된 동물’도 아니다. 고양이는 움직이는 작은 물체나 쥐 크기의 작은 동물에 대해 사냥 행동을 발현하지만 이는 야생화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고양이들에게 공통된 생존을 위해 발달된 특질이다. 따라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택한 인간은 고양이의 이와 같은 특질을 이해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로 자연보전지역에서 고양이가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 행위가 빚어진다면 이는 정책적인 방치와 무위의 결과이다. 이때는, 사실에 근거해 야생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과학적인 보호 관리 대책과 고양이의 자연보전 지역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제시, 실현되어야 한다. 대부분 산에나 섬에 사는 고양이들은 근처 민가나 산사, 종교제례, 어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인간생활에 기대어 살면서 일부 개체가 본능에 따라 사냥을 병행한다(고양이의 사냥 능력은 고양이가 인류의 반려동물이 된 가장 주요한 사유중 하나임을 잊지 말기로 하자). 때문에 침입종으로서 고양이의 관리 이전 인간에 의한 자연훼손과 주거지나 상업용지로의 개발 억제, 주거지나 상업지에서의 안전하고 과감한 TNR의 확대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길고양이 서식 영역 축소를 도모해야 할 부분이다. 이 모든 활동은 생태계 다양성과 생명존중을 목표로 치밀한 계획 하에 정부와 전문가 동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

5) 학대자가 되지 않기 위한 고양이 영역의 이해

고양이는 먹이와 생식을 기준으로 영역을 공유하는 소집단(colony)으로 분포하며 남아는 여아들의 분포에 따라 좀 더 너르게 영역을 유지한다. 고양이들은 느슨한 영역을 가지지만 이들의 영역은 가변적이다. 고양이는 조심스러운 관찰자로서 여러 번의 관찰과 경험 끝에 행동한다. 그들은 영역을 이동하거나 확장할 때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장소로 사전 학습한 정보를 이용하며 ‘조금씩’ 이동한다. 안전하고 좋은 장소여도 사전 정보를 갖지 못한 곳, 즉 먼 곳은 큰 스트레스가 되며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로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종 잠복된 질병이 발병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이를 중지하여 간경화에 이르기도 한다. 게다가 이동된 지역이 물이나 먹이가 없고 은신처가 없는 곳이라면 이는 직접적인 학대보다 더 잔인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유형 2.

길고양이 급식/TNR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

1) 고양이들의 번식 전략과 TNR의 유효성

고양이들은 평균 63일의 임신기간을 가지고 한 배에 2~8마리를 출산하며 보통은 한 달~2달 정도 포유를 한다. 280일 정도의 임신기간을 가지는 사람이나 소, 심지어 660일의 임신기간을 거쳐 단 한 마리만 출산하는 코끼리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여러 마리의 후손을 낳아 번성케 하는 종 보전 전략을 가지는 동물이다. 여아 고양이는 연중 임신이 가능하지만 일조량과 기온이 적합한 봄과 가을에 주로 임신과 출산을 한다. 따라서 고양이의 설치류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개체수 과다로 인한 성가심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지점은 출산의 억제이다. TNR을 통해 출산을 조절하는 한편, 건강하게 영역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 매우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방법인 것이다.

2) 케어테이커들은 문제 유발자가 아니라 해결자

고양이는 대체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발정시 멀리 있는 강한 짝을 찾기 위한 커다란 발정 콜링(발정 울음)이 진화되었다. TNR 된 고양이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가신 콜링 소리를 내지 않는다. 고양이들은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 후손을 퍼뜨리기 때문에 고양이의 복지와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먹이 제공 뿐 아니라 반드시 TNR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먹이주기는 TNR을 전제로 이뤄진다. 진정한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 봉사자들이다. 이들은 급식소 유지 관리와 TNR 뿐 아니라 입양 가능한 아기 고양이나 유기묘의 입양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병행한다. 너른 의미의 TNR은 유기묘와 아기 고양이의 입양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부 중성화 없이 먹이만 주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TNR이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신 때문이므로, 이후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 케어테이커 교육을 통해 TNR을 확대해 나간다면 해소될 수 있는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유형 3. 고양이로 인한 피해 호소

1) 한국 길고양이의 삶

우리나라는 길고양이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과 혐오가 심각한편이다. 도시의 거주 환경도 끊임없는 재개발, 로드킬, 독살, 서식지와 은신처의 절대적 부족, 혹서와 혹한에 노출 등 몹시 가혹하다. 결정적으로 고양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교외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손상한다거나 땅을 파고 배변을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행위가 빈발한다.

특히 최근의 광범위한 도시개발은 고양이들에게 큰 시련과 대규모 죽음의 위기를 부과한다. 고양이들은 어쩔 수 없이 차 엔진룸을 추위를 피하거나 은신할 공간으로 이용하며, 높은 곳에서 외부를 관찰하는 습성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 본넷이나 천정에 올라가기도 한다. 차량 덮개를 이용하거나 은신처를 만들어주고, 곳곳의 유희공간에 나무 한그루라도 있다면 고양이들이 관찰 장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땅 한 뼨도 인색한 한국의 상황속에서 길고양이들의 복지는 무척 열악하다. 급식소와 TNR, 겨울 은신처와 배변함 설치만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가장 뼈아픈 건 고양이를 연민하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양이들의 TNR에 매진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길고양이들이 가정 반려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가장 바라는 것이 그들이다.



그림 11 재개발지역의 어미묘와 새끼



그림 12 불법적인 독극물 살포 행위

2) 개물림은 사회적 이슈인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 이유

고양이는 작은 설치류를 주 사냥 대상으로 진화한 동물로서 자기보다 큰 동물에 대한 공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특히 길고양이 대다수는 사람들에게 대한 친화성이 없어 먼저 다가오는 경우는 없다. 다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할 때 먼저 하악거리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침을 뱉는 등 단계별 경고를 하고 그런 이후에도 위협이 계속될 때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 고양이가 사람을 핥거나 해치는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사람이 고양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양이에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 발생한다. 고양이 학대자들이 고양이가 물어서, 고양이가 핥아서 등 고양이에겐 학대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무지에 의한 불필요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고양이가 아무런 계기 없이 가만히 있는 자기 몸의 10배 크기의 동물인 사람에게 먼저 공격을 해 오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

맺는 말

길고양이의 개체군은 사람들의 방치와 유기, 중성화 부재에 기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호’를 전제로 한 정책과 제도의 도출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인간의 반려생활과 번식판매 등 산업 영위에서 파생된 길고양이 문제의 원인을 고양이에겐 돌리는 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바르지 못한 무효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인류와 고양이의 역사에서 고양이들의 숫자를 늘게 하고 숭배하거나 사랑한 것도, 돌연히 박해하며 죽이고 혐오한 것도 일방적인 인간들의 변심과 변덕이 원인이었다. 길고양이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의 교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TNR 정책은 길고양이의 추가적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번식판매 억제, 인식전환 캠페인, 평생 돌봄 교육 제공, 고양이 등록제의 강력한 시행과 유기처벌 등 통합적인 동물보호 관리 정책의 일환 혹은 보조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길고양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은 물론 고양이들의 독특한 생활사와 행동 그리고 생태적인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광범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찰카기
김하연 작가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찰카기 김하연작가

1. 공공성을 가진 길고양이 급식
2. 중성화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

1. 공공성을 가진 길고양이 급식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

-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6-01 21:25:3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011919)의 요지는 「길고양이가 보호대상인지」로 이해됩니다.
2. 우리 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길고양이가 보호대상 동물인지'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는 포유류로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에서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현숙(☎044-201-2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14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

한겨레 토요판 **한겨레 토요판**

어울림 중심의 캠페인 & 세계로 확장됩니다.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인문예의 월말 2021년 4월 4주

저자권을 나누는 판사 윤종수 **정말애의 제3회 2021년 4월 4주**

아옹산수짜에 대한 거대한 착각 **간판영어 인단교향 2021년 4월 4주**

6·15에 늦봄 문이환을 추억함

강골의 길냥이 식당 **정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한 서울 강동구 캣맘들과 변화가 이야기**

카버스토리 3번

카버스토리 3번 새 이야기

길고양이 어려운, 주민센터 앞에 밥과 물을 준비했어요

길고양이 어려운, 주민센터 앞에 밥과 물을 준비했어요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동물 보호법

법률 제 13023호, 2015.1.20 일부 개정

- 제3조(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7.1.4 한겨레신문

“길냥이들이, 국회 쉼터로 오름”

의원회관 옆 등 4개 켄타워 설치
한정에 의원실·동물단체가 추진
사료·중성화 비용 민간 지원받아
켄타워 'SI 동물감염 주의보'
위생관리·일회용 그릇 사용 권고

경기도 포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에이
리아에 걸린 야생 조류를 먹고 걸린 닭과
암이 폐사 소식으로 길고양이와 인간과 조류
류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
회인근 상봉구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추가로
설치됐다.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
업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는 급식소 주변을
방역 중이고, 켄타워에 일회용 종이 그릇을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월요일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인근 상봉구에 설
린 4개의 켄타워가 등장했다. 높이 200㎝에 상
각 지붕 모양이 갖춰 켄타워는 국회 안에 사는
길고양이들의 쉼터다. 급식소로, 의원회관 건

물 옆과 후생관 주변 등 4곳에 놓였다. 이근고양
이(3-구역)가 타워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다량어민주당
연생애 지원금과 동물유관단체(동물보호회
등)가 지원한다. 동물보호회(개장인물 발
견)인 한 의원이 지난 가을에 우선권 부여 사
무추진을 만나 급식소를 제안했다. 동원철과
한국과학기술사회에서 개장 5년만의 켄타
워 설치비용과 사료, 중성화수술 비용 등을 지
원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젊은 켄타워
이 급식소의 관리를 맡기로 했다. 환경청 일회용
프로젝트(대중교통)는 "국회 예산으로 고양
이방까지 온다는 말이 나올까 봐 사료와 중성
화수술 비용을 책임지려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종로구도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
안 급식소 3곳을 사설 운영한 후 확대를 고
려 중이다. 상문식 종로구 일사경제과 주
무관은 "서울시 급식소를 본 12인원을 주
고 급식소를 만들었다. 켄타워가 관리하는
데,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집거나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3년 5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 강동구(6개소)가 최초로 시작
했고, 2015년 이후 은평구(8개소), 서울시(3
개 공영 31개소)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급식소 운영의 실패는 중성화수술과 연계해
야만 한다. 서울시 용산구(공영)에 설치한
급식소 4곳은 예초 약독한 중성화비용을 달
성하지 못해 철수했다.

길고양이 에이리아 감염 우려가 커지자,
강동구는 급식소 주변 방역을 1주일에 2번
씩 하고 있다. 3일 강동구가 "연" 고양이가 에이
리아(대체)에게 걸린 후 급식소 주변에 예
천 동물복지의 조수이해, 전국에 수의학 박사
(수리)중문준화 천공은 "좋은 켄타워 시
작한 급식소때문에 고양이를 에이리아에
감염했다는 소식이 유행할까 걱정이다. 모래
아닌 기화에 고양이 급식소의 위생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바란다"며 "밥그릇을 고
양이들이 공동 이용하는 위생할 수 있느냐
한편에 많은 양의 사료를 두지 말고 고양
이 한 마리씩 사료만 두고, 에이리아가 중성
화 때까지는 일회용 종이 그릇 사용을 제안
했다"고 말했다. www.kor.kr



서울 여의도 국회 후생관 옆 상봉구에서 켄타워 설치현황이 찍혔다. 켄타워가 설치된 후 길고양이들이 켄타워를 이용하고 있다.

이명재 기자 imn@kore.com

국회 급식소

(feat. 한정애 의원실 비서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물보호조례 내 길고양이 관련 항목 조사

2022/11/20

		개정 및 제정일	길고양이 급식소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	비고
1	강남구	2021.7.9.(제)	o	o	
2	강동구	2018.10.4	x	o	
3	강북구	2021.8.6	x	x	
4	강서구	2021.9.17	o	o	
5	관악구	2022.3.28	여(공공급식소)	o	길고양이 화장실
6	광진구	2021.6.29	x	x	
7	구로구	2015.12.24	x	x	
8	금천구	2018.12.31	x	o	
9	노원구	2021.9.30	x	o	
10	도봉구	2021.4.5	x	o	
11	동대문구	2020.1.2	o	o	
12	동작구	2022.5.6	여(공공급식소)	o	청비구역내 길고양이 관련
13	마포구	2022.10.30	여(공공급식소)	o	
14	서대문구	2021.12.29	o	x	
15	서초구	2021.10.28	o	o	
16	성동구	2020.10.26.(제)	x	o	
17	성북구	2020.10.5.(제)	x	o	
18	송파구	2021.11.4	o	o	동물복지 관련 홍보
19	양천구	2021.7.15	여(공공급식소)	o	
20	영등포구	2021.3.18	x	o	
21	용신구	2019.11.8	x	x	
22	은평구	2020.3.19.(제)	x	x	
23	종로구	2020.12.18.(제)	x	o	
24	중구	2020.6.10.(제)	x	o	길고양이 조항 없음
25	중랑구	2021.7.13	여(공공급식소)	o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2. 5.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681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9.>
-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신설 2022.5.6.>

제18조의2(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

-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2.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15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25>
-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서울시 자치구별 길고양이 단체 리스트 / 26개

2022.1.14

- | | |
|---|--|
|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http://cafe.naver.com/gwanakanifriend | 동대문구행복냥이꿈꾸개 http://cafe.naver.com/dongdaemuncat |
| 종로구길고양이관리봉사자협의회 http://cafe.naver.com/jongnocat | 동대문구길고양이아미 https://cafe.naver.com/armyforcats |
| 노원길위의생명을생각하는사람들 http://cafe.naver.com/nwalleycat | 강서구양천구캣맘 http://band.us/band/60656909 |
| 강동캣맘&캣대디협회 http://cafe.naver.com/gangdongcatcare | 양천구동네고양이(양동이) https://cafe.naver.com/pink4jlxl |
| 강동냥이행복조합 http://cafe.naver.com/gangdongcat | 양천구길고양이를부탁해 https://band.us/@standbyourcat |
| 서초구캣맘협회 http://cafe.naver.com/sclovecat |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https://cafe.naver.com/mapocat |
| 성동&광진캣맘모임(고양이의보은) http://cafe.naver.com/sgcatcare | 마포구길사모임 https://cafe.naver.com/skyblueoh12x |
| 은평구길고양이친구들(길냥이휴게소)
http://cafe.naver.com/catstation | 송파구캣맘&캣대디협의회 https://cafe.naver.com/songpagucats |
| 동작구캣맘협의회(동행길) http://band.us/@dongjakcat | 송파강남협의회고양이집사 https://band.us/band/62814790 |
| 중랑길고양이친구들 http://cafe.naver.com/jcat | 강남구길고양이협회 https://cafe.naver.com/gangnamcat |
| 성북구동네고양이살리기협회 http://cafe.naver.com/gilcathouse |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https://cafe.naver.com/animalandpeople |
| 도봉구&강북구행복한길생명들 http://cafe.naver.com/catsl | 금천구길고양이협회 https://band.us/band/72443806 |
| 동대문구길고양이보호협회 http://cafe.naver.com/ddmcat | 서울중구캣맘캣대디 https://cafe.naver.com/dongnecat |

주민 참여 예산

2. 중성화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서울시 중성화 사업 표준 지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진입력(예시)

	<p>- 포획 사진</p> <p>① 포획자명 : ② 포획일시 : ③ 포획장소 : ④ 체중/특이사항 : ※ 포획 장소, 개체 특징이 확인 가능한 사진</p>
	<p>- 수술 전 사진</p> <p>① 동물병원명: ② 수술일시 : 년 월 일 시경 ③ 성별/체중/특이사항 : ④ 개체기록카드작성 유무 : ※ 동물의 특징이 확인 가능한 사진</p>
	<p>- 수술 후 사진</p> <p>① 동물병원명: ② 수술일시 : 년 월 일 시경 ③ 성별/체중/특이사항 : ④ 개체기록카드작성 유무 : ※ 수술(수술 부위, 격출 장기 등)과 귀표의 등 확인 가능한 사진</p>
	<p>- 방사 사진</p> <p>① 방사자명 : ② 방사장소 : ③ 포획일시 : 년 월 일 시경 ④ 방사일시 : 년 월 일 시경 ※ 방사 장소, 귀표식 등 개체 특징이 확인 가능한 사진</p>

공고정보
공고번호 서울-동각-2020-0032

포획정보
포획일시 2020-10-05
포획장소 노원구 건강이차로

길고양이 정보
품종 길화계, 흰색
종류 KSH
성별 수컷
특이사항 Kibonnie 1st 1st 1st 1st 1st

TNR 정보
TNR 일시 2020-10-05
TNR 병원 다이안동물병원

방사정보
방사일시 2020-10-05
방사장소 노원구 건강이차로

중성화 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동작구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바로

2020.10.5 동작구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목록

공고정보
공고번호 서울-동각-2021-00363

포획정보
포획일시 2021-09-28
포획장소 양도동 포스코A

길고양이 정보
품종 길화계, 흰색
종류 KSH
성별 수컷
특이사항 Kibonnie 1st 1st 1st 1st 1st

TNR 정보
TNR 일시 2021-09-28
TNR 병원 다이안동물병원

방사정보
방사일시 2021-09-28
방사장소 양도동 포스코A

중성화 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동작구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2021.9.28 동작구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공고정보

공고번호 서울-동물-2022-00049

포획정보

포획일자 2022-03-15
포획장소 동작대로19길 26-5

길고양이 정보

탈색 흰색, 갈색이름무늬
종류 KDM
성별 수컷
특이사항 중상한 편

TNR 정보

TNR 일자 2022-03-15 TNR 방법

방사정보

방사일자 2022-03-15
방사장소 동작대로19길 26-5

증경정보

입적한 장부가 없습니다.

동작대로19길 56-5

2022.3.8 동작구

2022/03/16 09:50 PM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관악구 vs 서초구 (202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조희

서울 관악구

공고정보

공고번호 서울-동물-2020-00208

포획정보

포획일자 2020-04-16 포획처 관악구청사

포획장소 관악구청사(관악1동)

길고양이 정보

탈색 흰색, 갈색이름무늬
종류 KDM
성별 수컷
특이사항 중상한 편

TNR 정보

TNR 일자 2020-04-16 TNR 방법 사탕물물방울

방사정보

방사일자 2020-04-16 방사처 관악구청사

방사장소 관악구청사(관악1동)

증경정보

입적한 장부가 없습니다.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조희

서울 서초구

공고정보

공고번호 서울-동물-2020-00186

포획정보

포획일자 2020-05-13 포획처 길천동

포획장소 길천19구역

길고양이 정보

탈색 흰색, 갈색이름무늬
종류 KDM
성별 수컷
특이사항 중상한 편

TNR 정보

TNR 일자 2020-05-14 TNR 방법 사탕물물방울

방사정보

방사일자 2020-05-20 방사처 길천동

방사장소 길천19구역

증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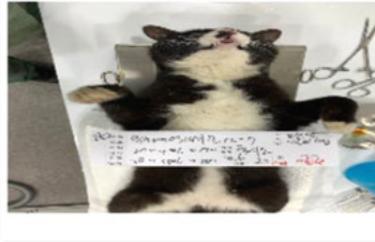
입적한 장부가 없습니다.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관악구 vs 서초구 (2020)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관악구 vs 서초구 (2021)

서울 관악구

공고장번호	서울-관악-2021-0907		
도록장번호	2021-09-08		
포획장소	관악구 관산로2길19		
강교양이장번호			
말색	흰색/검정	몸무게	2.64kg
종종	KSH	연령	2살수컷
성별	암컷	건강상태	양호
특이사항	특이사항없음		
TNR장번호			
TNR 일자	2021-09-08	TNR 방법	세일링방법
방사장번호			
방사 일자	2021-09-08		
방사장소	관악구 관산로2길19		
종결장번호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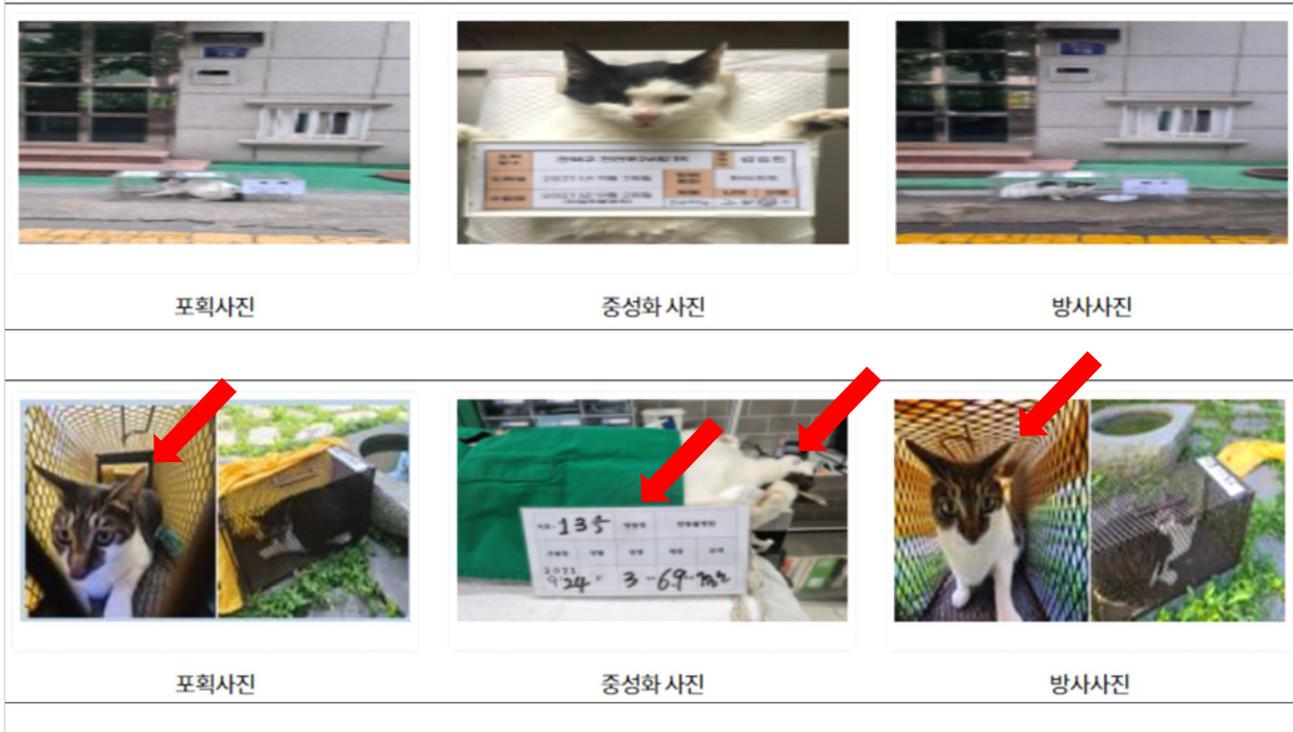
공고장번호	서울-서초-2021-0908		
도록장번호	2021-09-08		
포획장소	서초구 서초로10길19		
강교양이장번호			
말색	검소	몸무게	6.99kg
종종	포소	연령	3
성별	암컷	건강상태	양호
특이사항	특이사항없음		
TNR장번호			
TNR 일자	2021-09-08	TNR 방법	한 두 방법
방사장번호			
방사 일자	2021-09-08		
방사장소	서초구 서초로10길19		
종결장번호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관악구 vs 서초구 (2021)



관악구 vs 서초구 (2022)

서울 관악구

공고장번호	서울-관악-2022-08102	
도록장번호	2022-09-13	
포획일시	2022-09-13	
포획장소	관악구 봉림동길 14-2길 35	
성별	♂	암컷
종류	길고양이	민양
상태	건강상태	양호
특이사항	피 알레르기 반응 증세 있음	
TNR 일시	2022-09-14	TNR 병원
방사일시	2022-09-17	방사장소
방사장소	관악구 봉림동길 14-2길 35	





서울 서초구

공고장번호	서울-서초-2022-08046	
도록장번호	2022-09-19	
포획일시	2022-09-19	
포획장소	서초구 동백동	
성별	♂	암컷
종류	민양	길고양이
상태	건강상태	양호
특이사항	22대	
TNR 일시	2022-09-19	TNR 병원
방사일시	2022-09-02	방사장소
방사장소	서초구 동백동	





관악구 vs 서초구 (2022)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방사사진



포획사진



중성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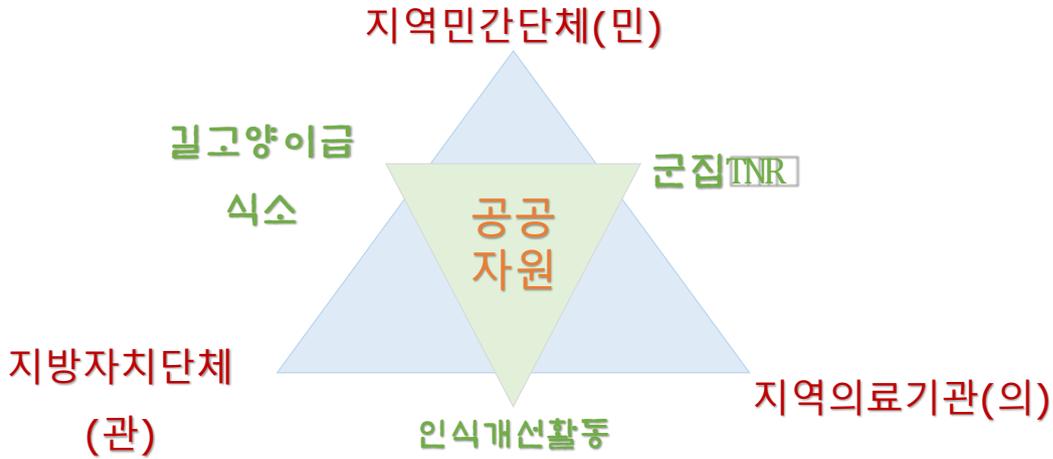


방사사진

길고양이 지역 단체의 목적

공감 받는 공존

동네고양이 돌봄의 이상적 모델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관악길보호협단 사회 공동체의 일환인 동네고양이와 개척주인 길고양이에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하는 관악구 지역주민단체입니다.

협단이 일관 일관 운영되는 동네고양이와 안정적인 공존 생태계 제도 확립을 위한 활동과 주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는 관악구 지역주민단체입니다.

조합원 가입 안내

관악길보호협단 사회 공동체의 일환인 동네고양이와 개척주인 길고양이에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하는 관악구 지역주민단체입니다.

가입신청

www.annakcat.com
02-5100-1111
02-5100-1111

01 가입신청서 제출
02 출가금 납부
03 관악길보호협단 회원증 수령
04 조합원 가입 증명서 수령

주요목적

01 가입 목적

- 조합원 가입 증명서 수령 및 관악

02 가입 후 4개월차부터

- 관악구 길고양이 돌봄에 참여하기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관악구 지역주민단체입니다.

www.annakcat.com

관악길보호협회의 활동 및 추구방향

관악길보호협회의 주요활동

- 1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
- 2 길고양이 군집단위 활동 운영(TNR)
- 3 길고양이 인식개선 위한 홍보, 교육 활동

관악길보호협회가 추구하는 관악구 동네고양이 공존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www.annakcat.com

효과1: 관악길에 한해 한정하여, 체계적 운영과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공존 효과를 높입니다.

효과2: 길고양이 인종, 색상, 수컷/암컷의 공존 효과를 높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벽을 세운다

[동물학대 범죄 예방 대책 마련]

길고양이 돌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세미나 - 혐오와 갈등을 넘어, 길고양이 복지 향상 및 공존을 위한 활동

(사)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더불어숨센터 | 02-3482-0999 | info@ekara.org
www.ekara.org

 kara.animal

 animal_kara

 ekara_org

 blog animalkara